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 사 학 위 논 문

중국어 보어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201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한 국 어 문 학 과

한 국 어 교 육 전 공

한 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중국어 보어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The Study the Teaching & Learning method using Chinese
complement sentence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상

석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고창수

중국어 보어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The Study the Teaching & Learning method using Chinese
complement sentence

위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06월 일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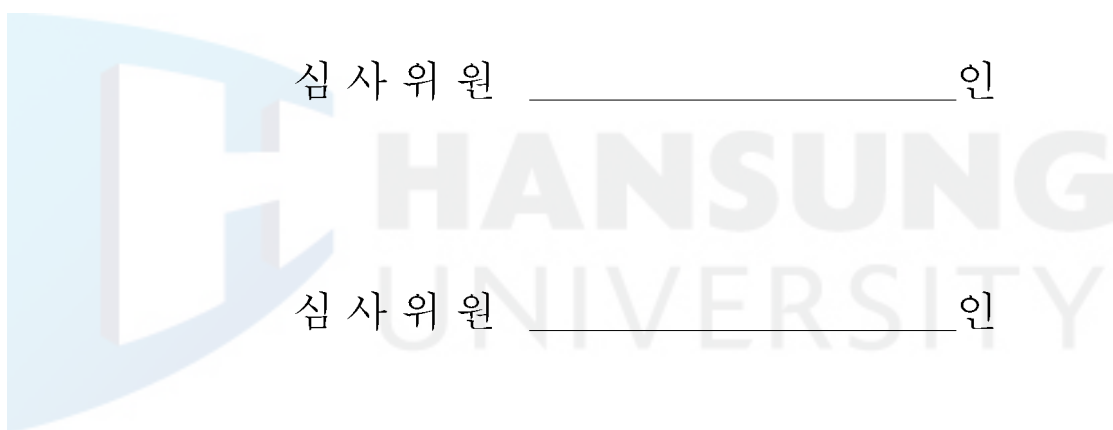
한상의 문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1년 06월 일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국 문 초 록

중국어 보어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한국어문학과

한국어교육전공

한 상

중국어 보어구문을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대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 개선 방안 및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교재 분석 과정에서 문제점은 문법 기술 용어, 문법의 배열 순서에서 사용 비도, 중국어 번역문과 대응 기술 등이 나뉘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 설명과 비교 분석을 통해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어의 문법용어가 필요하고 한국어 문법과 중국어 문법(한국어 동사구와 중국어 보어 구문)을 대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어 동사구에 대한 교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서 교육 개선 방안 모형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중국어 보어구문, 한국어 동사구, 유사성, 한국어 문법 교육, 교재 개선 방안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1. 2 선행연구	5
1.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9
제 2 장 중국어의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대응 관계	12
2. 1 중국어 보어의 정의 및 분류	12
2. 2 결과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14
2. 3 방향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24
2. 4 가능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30
2. 5 수량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34
2. 6 상태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36
2. 7 정도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39
제 3 장 중국 내 한국어 교재에서 동사구 제시 방법 분석	42
3. 1 중국의 한국어 교재 현황	42
3. 2 중국어 보어구문과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비교 분석	43
3. 2. 1 제시 설명	43
3. 2. 2 내용 설명	50
제 4 장 한국어 동사구 학습 개선 방안 모형	81
4. 1 문법 설명 개선	81

4. 2 예문 제시 개선	90
제 5 장 결 론	101
【참고문헌】	103
ABSTRACT	106
中文摘要	108



【 표 목 차 】

[표 1] 중국어 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대조표	9
[표 2] 연구 대상 교과서 목록	10
[표 3] 중국어 보어의 유형	12
[표 4] 한국어 동사구의 항목과 중국어 보어구문의 대응관계	13
[표 5] ‘부사어+동사’의 중국어 대응표	21
[표 6] 의존 동사는 중국어 결과보어와 대응 사항	23
[표 7] 방향보어	25
[표 8] 복합방향보어의 동보구조	25
[표 9] 가능보어 형성표	32
[표 10] 가능보어와 상태보어의 비교	37
[표 11]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의 한국어 교재 목록	43
[표 12] 「標準韓國語」의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43
[표 13] 「韓國語」의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46
[표 14] 「輕松學韓語」의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48
[표 15] 교재별 ‘부사어+동사’의 내용 설명	51
[표 16] 교재별 ‘-아/어 버리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51
[표 17] 교재별 ‘-아/어 내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53
[표 18] 교재별 ‘-아/어 놓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55
[표 19] 교재별 ‘-아/어 두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57
[표 20] 교재별 ‘-게 되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60
[표 21] 교재별 ‘-고 말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62
[표 22] 교재별 ‘-아/어 죽겠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64
[표 23] 교재별 ‘—(으)ㄴ적이 있다/없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65
[표 24] 교재별 ‘—(으)ㄴ 수 있다/없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68
[표 25] 교재별 ‘—(으)ㄴ 지 됐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70
[표 26] 교재별 ‘-아/어 가다/오다(돌아가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72
[표 27] 교재별 ‘V+왔다/ 었다/ 였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73

[표 28] 교재별 ‘—아/어서(이유)’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76



【 그림 목 차 】

<그림 1> 결과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①	15
<그림 2> 결과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②	16
<그림 3> 결과보어가 부가구조를 만드는 경우①	17
<그림 4> 결과보어가 부가구조를 만드는 경우②	18
<그림 5> 결과보어가 상을 표현하는 경우	20
<그림 6> 방향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	26
<그림 7> 방향보어가 분리되어 목적어 뒤로 이동하는 경우	28
<그림 8> 방향보어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	29
<그림 9> 결과보어 앞에 ‘得/不’을 삽입하면서 앞에 동사 붙어 가능보어 구조가 되는 경우	31
<그림 10> 방향보어 앞에 ‘得/不’을 삽입하면서 앞의 동사 붙는 경우	32
<그림 11> 가능보어가 앞에 동사에 붙는 경우	33
<그림 12> 수량보어가 상을 표현되는 경우	35
<그림 13> 상태보어가 앞의 동사 붙는 경우	36
<그림 14> 정도보어가 상을 표현하는 경우	40
<그림 15> ‘-아/어/여 가다/오다’의 의미	82

제 1 장 서 론

1.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본고의 목적은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대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 있다.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를 학습할 때 모어와 한국어 사이에 어휘와 문법면에서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때 이미 알고 있는 중국어 어휘와 문법을 이용하여 한국어 어휘와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송지현(2006:366)에서는 외국어를 학습할 때 모국어의 간섭을 떨쳐 버리기는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하였다. 이미 형성되어 버린 모국어의 언어체계가 있어서 새로운 외국어의 언어체계를 받아들이려면 모국어의 방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모국어의 지식을 이용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학습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도 지적하였다. 따라서 중국어 모어 학습자에게 한국어의 어휘 및 문법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면 한국어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서로 교섭해 왔다. 중국어로부터 한자를 수입함으로써 중국어 어휘가 한국어에 다량 증가하게 된 것도 그 예이다. 고대로부터 이미 중국과의 문화 접촉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이 언어에 미친 결과이며 현재 한국어 어휘의 대부분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다. '한자어'는 한국어에서 중국어를 차용하면서 생산된 단어이며 그것은 중국어의 단어와 음이 가까우며 뜻도 같다(陳榮心 2003:9). 따라서 한 · 중 언어는 어휘적으로 유사한 것이 많다.

초급 학습자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어휘이다. 중국 사람들은 한국어 어휘를 배울 때 한국어의 어휘가 비슷해서 편하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한국어의 '상황'을 중국어에서는 '狀況/常況'(zhuangtai/changtai), 한국어의 '감탄'을 중국어에서는 '感歎'(gantan), 한국어의 '의지'를 중국어에서는 '意志'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 못지 않게 차이나는 부분도 적지 않다. 번역

에 따라 한국어의 경우는 ‘이해하다’에 대응하는 낱말로 ‘理解’를 쓰는데 중국어에서는 ‘了解’를 사용한다. ‘대량(大量)’이라는 단어의 한국어 의미는 ‘아주 많은 분량이나 수량’이라는 뜻이 있는데 중국어의 첫 번째 의미는 ‘아주 많은 분량이나 수량’이고 두 번째는 ‘도량이 넓다, 관대(寬大)하다’ 뜻을 가지고 있다. 유림(2009:16-18)에서는 ‘의견(意見)’이라는 단어의 한국어 의미는 ‘어떤 일에 대한 생각’이라는 뜻인데 중국어의 의미는 첫 번째는 다른 주장이나 의론이고, 두 번째는 이의(異意), 반대(反對), 불만(不滿)’이라는 뜻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는 뜻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어휘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들을 초급 수준에서 빨리 학습에 적용하는 것이 중국인 학습자에게 유리할 수 있다. 김수희(2004:66)에서도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사용이 비교적 높다는 것은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한 · 중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이용하여 타 언어권에 비해 친숙함을 가질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그 사용상의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어 학습 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양 언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알고 이를 한국어 학습을 시작하는 중국인 학습자의 어휘 교육에 이용한다면 유용한 학습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다.

두 언어 사이에는 어휘의 유사성과 차이점 말고도 문법에도 유사성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그런데 한국어와 중국어 서로 계통이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는 차이점이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왕정춘(2003:3)에서는 한국어를 정확하고, 유창하게, 그리고 자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내기 위해서 양 언어의 문법이 가진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강홍(2010:1)에서는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의 조사나 어미, 시제 등을 배우기가 어려운 이유를 양 언어의 유형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과거 시제는 한국어 선어말어미 ‘-었-’으로 표시되고 중국어에서는 과거시제 표현 없이 사용하기도 한다. 중국어로 과거를 표현할 때 ‘了’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了’는 과거의 뜻보다는 동작의 완동사 같은 상적 의미가 더 강하다. 따라서 ‘었’과 ‘了’를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다. 또한 한국어에서 ‘-었었’으로 표시되는 대과거시제가 있지만 중국어에서 이와 대응하는 문법범주가 없기 때

문에 일반적으로 일반 과거시제의 표현에 먼 과거의미를 나타내는 시간어를 붙임으로써 대과거의미를 나타낸다.

두 언어의 문법의 유사성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주제어 구문을 들 수 있다. 즉 중국어와 한국어는 똑같이 '주제 부각어 언어'(Topic Prominence Language)라는 것이다. 찰스 N. 리(Charles N. Li)와 샌드라 A. 톰스(Sandra A. Thomrsom)(2009:116-118)의 「표준중국어 문법」에서도 중국어를 '주제어 부각 언어'로 분류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주어와 주제어를 모두 가지는 문형을 특히 한국어 문법에서는 '이중주어문'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주제어는 사용층 위에 해당되는 담화론이나 문체론적인 요소로서 흔히 인식되고 있다.¹⁾ 중국어의 예문에서도 주제어를 사용하는 두 언어의 공통점은 아래 (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주어	
(1) 가.	코끼리는	코가	길다.
	大象	鼻子	長。
	주제어	주어	
나.	중국은	인구가	매우 많다.
	中國	人口	很多。
	주제어	주어	
다.	이 일은	내가	이미 처리했다.
	這件事	我	已經處理好了。

(1가)에서 주제어는 '大象'이다. 왜냐하면 주제어는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이 한정 명사구이고 동사와 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주어는 아니고 주제어라고 부른다. '鼻子'는 동사와 '행위'나 '존재'의 관계를 가진 명사구이기 때문에 주어가 된다. 이 특징은 (1)의 비교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어 문법과 거의 같은 것이다. (1다)의 예문에서 주제어 '這件事'는 한국어에서는 목적어가 주제어화 된 경우로 분석하므로 중국어와 한국어 주제어 개념이 꼭 같은 것은

1) 한국어의 이중주어구문은 주격조사 '-이/가'가 두 번 나오는 문장으로 'NP₁ -이/가+NP₂-이/가+VP'의 형식을 말한다.

아니다.

또한 한국어에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는 중국어에서 양사와 표현이 비슷하다. 한국어에서는 셀 수 있는 명사들을 셀 때 '열 사과', '열 사람', '열 물'이라고 하지 않고, '열 개의 사과', '열 명의 사람', '열 병의 물'과 같은 표현을 쓴다. 중국어에서도 사물이나 인물을 셀 때 이런 표현을 쓴다. 예를 들어, '十个苹果'이나 '十名人', '十瓶水'으로 표현한다.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에도 이와 같은 유사성이 존재한다. 물론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유사성은 앞에서 설명한 주제어구문이나 수량사 용법과 같이 단순하지는 않다. 중국어의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 사이에 유사성외에도 차이점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용법의 유사성도 잘 활용하면 한국어 동사구와 관련된 학습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도 동사구는 구문의 핵심을 이룬다. 동사구는 주어와 함께 문장을 이루는 가장 필수적인 성분이다. 그런데 동사의 활용과 이해는 좀 복잡하고 교수와 학습도 어려운 부분이다. 동사구는 핵심인 동사 이외에도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의 참여자를 가리키는 명사구뿐만 아니라 동사와 함께 쓰이는 문법적 요소들을 포함한다.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어로 한국어 동사구를 이해하고 번역할 때 한국어 동사구와 가장 밀접한 관계는 바로 중국어의 보어이다. 중국어의 보어는 문장에서 술어(동사 술어 또는 형용사 술어) 뒤에 오는 요소로, 술어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어 동사구를 잘 이해하려면 중국어 보어의 학습과 중국어와 대응의 문장성분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중국인 학습자들은 자기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한국어 유사성까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유사성을 모를 수도 있다. 따라서 중국어 보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한국어 동사구를 쉽게 가르치거나 학습할 수 있다.

한국어 교육에서 중국인 중급 학습자에게 두 언어의 유사성을 이용하며 중국어 보어구문의 동사구를 효과적으로 교수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으로 제시된 바가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

구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대비 분석하여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학습에 적용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그 실제적인 적용 예를 제시하였다.

1.2 선행연구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먼저 중국어 보어구문의 개념과 특성을 다룬 연구들과 한국어 동사구를 중심으로 한국어의 동사구와 대비한 연구들을 살펴보겠다. 우선 중국어 보어연구에서 채용한 이론과 지금까지의 보어연구에 관한 주요관점들을 살펴보자.

중국어어법체계에서는 보어를 문장성분 중의 하나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어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해를 위해서 우선 중국어의 주요 문장성분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학자마다 견해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기본적인 문장성분으로 주어(主語), 술어(述語), 목적어(賓語),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보어(補語)로 분류한다. 이 중 주어(主語), 술어(述語), 목적어(賓語)는 문장 중에서 주요 성분이고 중심어라고 하는데, 관형어(定語), 부사어(狀語), 보어(補語)는 문장 중에서 수식어라고 한다. 관형어는 주어나 목적어 앞에서 뒤에 성분을 수식해 주는 성분이다. 부사어는 술어(동사, 형용사)를 수식해 주는 성분이며, 보어는 술어의 뒤에서 의미를 보충해 주는 성분이다. 중국어 문장의 완전한(完整) 구조는 (2)와 같다.

(2) 중국어 문장의 완전한(完整) 구조:

부사어, 관형어+주어+부사어+술어+보어+관형어+목적어

중국어 문장의 기본 구조는 8가지로 분류하는 예문은 아래(3)-(4)를 살펴보자.

1차 기본 문형:

(3) 가. 주어+술어

我 讀。 <나는 읽는다.>

나. 주어+술어+목적어

我 讀 書。 <나는 책을 읽는다.>

2차 기본 문형: 보어문형:

(4) 가. 주어+술어+보어

我 讀 完了。 <나는 다 읽었다.>

나. 주어+술어+보어+목적어

我 讀 完 書了。 <나는 책을 다 읽었다.>

다. 주어+술어+보어+관형어+목적어

我 讀 完 兩本 書。 <나는 책 두 권을 다 읽어 버렸다. >

라. 관형어+주어+술어+보어+관형어+목적어

我的 朋友 讀 完 兩本 書。 <내 친구는 책 두 권을 다 읽어 버렸다. >

마. 관형어+주어+부사어+술어+보어+관형어+목적어

我的 朋友 剛剛 讀 完 兩本 書。

<내 친구는 방금 전에 두 권 책을 다 읽어 버렸다.>

바. 부사어, 관형어+주어+부사어+술어+보어+관형어+목적어

在圖書館, 我的 朋友 剛剛 讀 完 兩本 書。

<도서관에서, 내 친구는 방금 전에 두 권 책을 다 읽어 버렸다.>

또한 대다수 어법학자들은 보어와 동사의 밀접한 관계를 동보구조로 설명하였다.²⁾ 동보구조연구의 가장 초기라 할 수 있는 4, 50년대는 전통연구방법을 위주로 하였는데 60년대부터는 변형생성문법에 의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丁聲樹(1961:123)은 동보구조를 통사구조의 하나로 확정하여, ‘동보구조(動補構造)’, ‘형보구조(形補構造)’로 명명했다.³⁾ 이때 동보구조는 “動詞趨向性后

2) ‘동조구조’를 ‘술보구조’라고 부르기도 한다. 동사 뒤에 보어가 올 수도 있지만, 형용사 뒤에 보어가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형용사는 광의의 동사에 포함될 수 있고, 기존에 술보구조라는 용어보다는 동보구조를 많이 사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점들에 근거하여 본고에서는 한국어 동사구와 관계를 연구하기 때문에 ‘동보구조’만 사용하기로 한다.

3) 다시 말하면, 동사와 그 뒤에 나타내는 보어의 구조는 동보구조라고 정의하였다. 형용사와 그 뒤에

置成分結構分析”의 서술과 같이 보어는 동사에 따라 동사에 후치되는 성분으로 본 것이다.

김은순(2008:4)에서는 1965년 이후부터, 변형생성어법학과가 중국어연구에 미친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변형생성문법을 연구자들은 촘스키의 ‘심층구조(深層構造)’ 이론을 채용하여, 변형규칙을 응용하고, 통사형식과 의미의 분합(分合)상황을 보여주었다고 하였다. 또한 연구들은 내부의 ‘외부’를 향한 변형을 통해, 사람들이 통사형식의 표현을 꿰뚫어 배후에 숨어있는 동보구조, 동보구조의 의미관계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으므로, 표현의 묘사를 아주 깊게 파고들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보인 중국어 동보구조는 다음 (5)와 같다.

(5)



(5)에서 보듯이 ‘吃+完’은 동보구조로 보어 ‘完’은 동사 ‘吃’에 의해 동작이 보충 설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8년 이후 대량의 언어사실로 규칙을 발견하고, 과거보다 더 전면적이고, 더 개념적이고, 더 완벽하게, 더 깊이 있게 동보구조의 규칙을 살피게 되었고 이에 따라 보어에 대한 연구는 과학성과 체계성을 구비하게 되었다(김은순 2008:4). 따라서 이와 같은 단순한 정의로는 보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어를 주요 문장 성분의 하나로 보고 이의 구조를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

나타내는 보어의 구조는 형보구조라고 정의하였다.

였다. 김화숙(2006:4)는 기본적으로 보어는 문장 중에서 기본성분에 해당하는 주어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술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부가성분에 속하여 불완전한 상태를 보충하게 되어 정확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문장성분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보어는 중국어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성분이라고 할 수 있다(손득금 2010:238).⁴⁾

중국어의 보어는 분류하는 연구는 胡裕樹(1962)에서 “결과보어, 방향보어, 정태보어, 수량보어”의 네 가지 분류가 제안되었으며, 唐啓運(1980)에서는 “시간보어, 장소보어, 수량보어, 방향보어, 동태보어, 결과보어, 정도보어, 가능보어, 형용보어, 대상보어, 수단보어, 의문보어”의 12 개의 분류로 세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孟周億(1992)에서 이를 여섯 가지 “결과보어, 정도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장소보어”로 구분하였고, 陳高春(1994)에서 “결과보어, 방향보어, 수량보어, 상태보어, 가능보어”의 다섯 가지 분류, 盧福波(2000)는 “결과보어, 방향보어, 상태보어, 수량보어, 기능보어, 개사보어”의 여섯 가지 분류로 정리되었다. 이들 중 용어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으나, 대체로 장소보어와 개사보어는 상태보어와 통합될 수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한국어 동사구와의 관련을 생각하여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여섯 가지로 분류하기로 한다.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와 관련된 서술들은 많지는 않지만 김종호(2003), 이남(2009), 李明花(2010)을 들 수 있다.

김종호(2003:87-88)에서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하다 보면 흔히 중국어의 보어가 한국어의 부사어로 해석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중국어에서 항상 술어의 뒤에 위치하여 술어에 대한 보충 기능을 가지는 보어 성분이 한국어에서는 수식어로 전환되어 술어 앞에 위치하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며, 이는 두 언어에 일정한 의미를 표시하는 성분이 문장에서의 위치와 기능에 있어 차이를 보이는 점이 있다고 하였다.

이남(2009:1-2)에서는 한국어 의존 동사와 대응되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연구한 것은 많지 않고 단순히 어휘적인 의미에 대한 연구일 뿐이라고 하기 때

4) 孟周億(1992:300), 전숙경(1996:23), 劉月華(2001:句法上部分第6章), 김하라(2007:4)에서도 보어는 동사와 형용사 뒤에 위치하여 이를 보충 설명하는 성분으로 동작의 변화된 결과, 방향, 가능, 수량, 상태, 정도 등의 의미를 부가하는 성분이라고 하였다.

문에 한국어 의존 동사의 중국어 대응하는 성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李明花(2010:282-286)에서는 한국어 의존 동사와 중국어 결과보어는 모두 서술어에 붙어서 서술어의 의미를 덧붙태어 준다는데 공통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의존 동사와 중국어의 결과보어는 단독으로 하나의 문장을 이룰 수 없다고 하였다.

이 연구들은 중국어 보어구문에 대한 예는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나, 주로 중국어 결과보어구문에 한정하여 한국어 의존 동사와의 관련성을 설명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어 보어구문의 전체적 양상을 살피면서 한국어의 동사구를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다.

1.3 연구 방법과 범위

본고에서는 먼저 중국어 보어의 정의와 분류를 분석하여 중국어 보어구문과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구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중국어 보어구문을 번역할 때 한국어 동사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된다는 점에 주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상태의 변화와 결과가 나온 것과 상태의 변환 것을 표현할 때 ‘잘 알아들다 (听懂了)’ 나 ‘깨끗하게 빨다 (洗干净)’와 같이 한국어 구문 형식은 ‘부사(부사어)+술어동사’, ‘형용사+게(부사어)+술어동사’라고 하는데 중국어의 구문 형식은 ‘술어동사+형용사(보어)’의 형식을 취한다. 그러므로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어 보어와 한국어 동사구를 체계적으로 대비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 <표 1>에서는 중국어 보어구문과 대응될 수 있는 한국어 동사구의 예들은 요약한 것이다.

<표 1> 중국어 보어와 한국어 동사구 대조표

중국어 보어	한국어 동사구
결과보어	부사어+동사
	의존 동사
	의존명사
	동사의 과거시제형

방향보어	복합동사
가능보어	의존명사
수량보어	의존명사
상태보어	—아/어서(이유)
정도보어	의존 동사

다음으로 한국어 동사구에 대한 중국에서 쓰고 있는 교재에서 차이점 및 공통점을 비교하여 제시하고 중국인 학습자의 언어 특성을 고려하면서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학습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에서 관련된 항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대상 교과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 교과서 목록

발급기관	교재 명칭	출판년도
民族出版社	「韓國語」	2005
北京大學出版社	「輕松學韓語」	2006
北京大學出版社	「標準韓國語」	2007

본고는 이상의 내용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 및 연구내용과 방법, 선행 연구 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 문법, 어휘적인 차이점이 많지만 유사한 부분도 적지 않다. 두 언어 비교를 통해 그중에는 한국어 동사구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경우를 알아보고 중국어 보어와 한국어 동사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동사구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학습 방법을 찾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한국어 동사구의 학습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학습하는 데 필요한 교재 구성 방안이나 설명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고의 최종 목표가 된다.

2장에서는 중국어 보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어의 정의 및 종류를 고찰하였다. 한국어 동사구와 대응성이 높은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 여섯 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의 보어의 정의와 특징을 예문과 함께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국어 보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는 ‘부사어+동사, 의존 동사 구문, 의존 명사, 동사의 과거시제, 복합동사, 아/어서(이유)표현’과의 대응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교재 설명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3장에서는 한국어 교재에서 동사구를 동사구에 대한 교재에서 어떤 방식을 나타나는지 알아보고 제시 방법 및 예문 제시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보았다.

4장에서는 교재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중국인 학습자에게 적용하는 학습 및 교수 방안을 제안하였다.

5장에서는 본고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남은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 2 장 중국어의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대응 관계

2.1 중국어 보어의 정의 및 분류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어 보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의 관계를 잘 이해시키려면 먼저 중국어의 보어 개념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한다. 중국어 보어는 술어가 되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서 용언 성분으로 충당되며, 앞에 나오는 술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이병관 2010). 보어는 술어의 뒤에 위치하여 각종 의미를 보충 설명해준다. 그런데 한국어는 중국어 보어처럼 동사나 형용사의 뒤에서 앞 성분을 보충 설명하는 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동사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다.

중국어의 보어는 결과보어(結果補語), 방향보어(方向補語), 가능보어(可能補語), 수량보어(數量補語), 상태보어(狀態補語), 정도보어(程度補語)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각 보어가 앞 성분의 의미를 어떻게 보충하는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이들의 기능적 특징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중국어 보어의 유형

결과보어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설명한다. 술어 뒤에 붙는다.
방향보어	사람이나 사물 또는 일의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한다. 술어 뒤에 ‘來’, ‘去’, ‘上來’, ‘下去’등과 같은 방향동사가 쓰여 직접 붙는다.
가능보어	어떤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충 설명한다. 긍정형은 술어의 뒤에‘得’를 동반하지만 부정형은‘不’를 동반한다.
수량보어	술어의 뒤에서 수량이나 시간의 양을 보충 설명해 준다. 술어 뒤에 놓인다. 보어로 쓰이는 것 수량구
상태보어	술어의 독자 행위의 양태나 상황을 나타낸다.

	술어 뒤에 꼭‘得’를 동반한다.
정도보어	행동 또는 상태의 정도를 보충 설명한다. 보어로 쓰이는 것 ‘死’, ‘坏’

중국어는 고립어로서 복잡한 형태 변화 없이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순에 의하여 나타난다. 이와 달리 한국어는 교착어이고 어휘 뒤에 문법적 형태를 붙임으로써 각 어휘 간의 관계를 나타낸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어휘를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하더라도 문장을 생성시키는 규칙을 모르면 정확하게 한국어 문장을 만들 수가 없다. 따라서 한국어 문법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 중국어 문법과의 대조를 통하여 유사성을 찾아보고 비교하면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다.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내용을 표시하는 방법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작지 않다. 본고에서는 서로의 유사성에 입각하여 중국어 보어구문을 한국어 동사구들과 대응하여 보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어 보어구문에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구는 ‘부사어+동사, 의존 동사, 의존명사, 동사의 과거시제형, 복합동사, 아/어서(이유)+동사’로 여섯 가지를 나눌 수 있다. 아래 <표 4>는 <표 3>의 내용을 한국어 동사구를 중심으로 재배치하고,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구의 예들을 함께 보인 것이다.

<표 4> 한국어 동사구의 항목과 중국어 보어구문의 대응관계

한국어 동사 구문	대응하는 중국어 구문 성분	항목
부사어+동사	결과보어	(다, 잘, 많이...)+V
		(Adj+게)+V
의존 동사	결과보어	V+아/어 버리다
		V+아/어 내다
		V+아/어 두(놓다)
		V+게 되다
		V+고 말다
		V+아/어 죽겠다
	정도보어	V+아/어 죽겠다
의존명사	결과보어	V+(으)ㄴ 적이 있다/없다
	가능보어	V+(으)ㄴ 수 있다/없다
	수량보어	V+(으)ㄴ 지 됐다

복합동사	방향보어	V+V(가다/오다/나오다)
동사의 과거시제형	결과보어	V+았다, 었다, 였다
아/어서(이유) 표현	상태보어	V+아/어서(이유)

두 언어의 대응관계를 분석하려면 먼저 중국어의 보어구문의 정의와 특성을 알아야 한다. 이때 각각 보어의 정의 및 의미만 분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중국어의 보어는 문장 중에서 단독으로 나타나는 성분이 아니고 술어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술어동사의 대상을 설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어 보어구문은 술보구조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동보구조(VC구조)와 형보구조(AC구조)로 두 가지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한국어 동사구와 대응관계를 찾아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중국어의 동사와 보어의 관계인 동보구조인 VC만 동보구조에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먼저 중국어의 결과보어 구문과 한국어 동사구의 대응을 살펴보기로 한다.

2.2 결과보어(結果補語 resultative complement)와 한국어 동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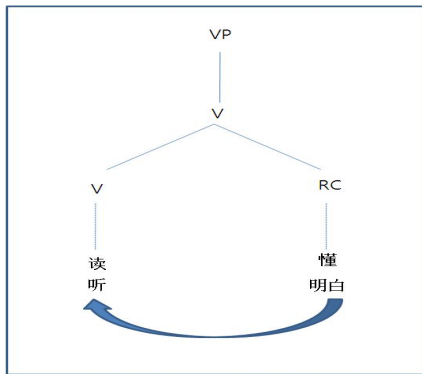
결과보어⁵⁾란 술어의 바로 뒤에 위치해 그 행위의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그 결과를 확실히 말해주는 역할을 한다(김효정 2005:75). 결과보어는 동사의 구성 성분 간에는 기본적인 의미관계가 있고 이루어진 VC구조 중간에 ‘得’자를 넣지 않는다.⁶⁾ Thompson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어에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결과 어미로 ‘懂’, ‘掉’, ‘完’, ‘多’, ‘開’ 등이 있다고 하였다(허성도 2010:325-412). 결과보어구문의 기본 형식은 ‘주어+술어(동사+결과보어)⇒ Sub+Pred(V+RC)’이다. 이들은 다시 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어 본 의미로 사용되는 것들과 동사의 앞으로 이동하며 LF(Logical Form)에서 부가구조를 이루는 것과 굴절소로 이동하여 상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V+RC’의 구문 중에서 ‘V’와 ‘RC’는 한국어 동사구의 대응 관계와 대조분석을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5) 중국어의 보어구문을 약칭할 때에는 앞으로 VC(Verb Complements)라고 하고 결과보어는 RC(Resultative Complement)를 하였다.

6) ‘得’자를 넣으면 결과보어가 아니고 가능보어나 상태보어가 된다.

<그림 1> 결과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①



(1) 가. 他讀(懂)了這本書刊。

그가 이 책을 읽어서 이해했다.

성분1 성분2

= 他讀 他懂了這本書刊

그가 읽다. 그가 이해했다.

나. 他听(明白)了這話。

이 말을 들어서 알아들었다.

성분1 성분2

= 他听 他明白了這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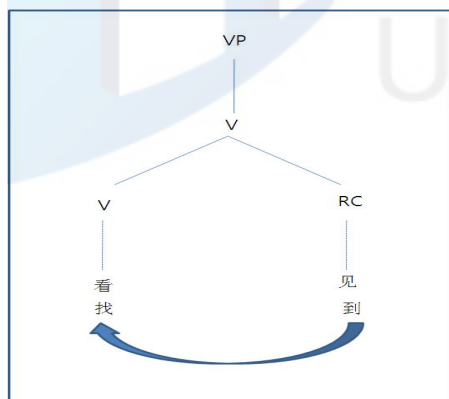
그가 듣다. 그가 알아들었다.

<그림 1>에서는 보어가 동사에 붙어 원인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이는 의미적으로 RC가 V로 이동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懂’, ‘明白’는 ‘讀’, ‘听’로 VC구조를 이루게 된다. ‘讀’, ‘听’는 동작의 원인이 되고 ‘懂’, ‘明白’는 동사에 부가되어 그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게 된다.

이와 같이 두 문장의 성분 상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용언+결과’가 되며 이들은 각각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를 ‘동작동사+아/어서’와 같이 구문으로 표현된다. 이때 동작동사는 RC구문의 성분1에 해당되고 후행 동사는 성분2에 해당된다. 양 언어에서 모두 성분1은 원인을 표시하고, 성분2는 결

과를 표시한다. 여기에서는 (1가)와 (1나)는 RC구조에 의해 ‘읽어서 이해했다, 들어서 알아들었다’로 해석된다. 즉 앞부분인 술어가 행위동작의 원인이 되고, 그 후행하는 결과보어가 동작의 결과를 표시한다. (1가)-(1나)의 ‘懂’, ‘明白’는 표시는 동사이지만 ‘讀’, ‘听’에 후행하면 결과보어가 되면서 VC구조를 이루게 된다. (1가)는 중국어 ‘懂’은 결과보어로 사용되면 “…… 한 결과 그 내용을 이해하다.”라는 의미를 갖게 되기 때문에 결과보어 ‘懂’은 동작을 통하여 대상을 이해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한국어 동사구를 대응시켜보면 ‘아/어서’라는 연결어미를 이용하여 ‘책을 읽다’에 연이어서 ‘(책을) 이해하다’는 동작의 결과를 표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나)에서도 마찬가지로 ‘听’는 한국어 ‘듣다’ 뜻인데 그 행위의 결과로 “말을 들어서 이해했다”는 뜻을 나타낸다. 한국어 동사구와 대비하여 보면 ‘아/어서’라는 연결어미를 이용하여 ‘말을 듣다.’에 연이어서 ‘(말을) 알아듣다’는 동작이 완성된다. 따라서 두 문장의 공통점은 앞 절의 내용이 뒷 절의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어 ‘V+RC’의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이다. ‘V+RC’가 ‘달성결과’라는 상황은 한국어 동사구 중에서 ‘아/어서’를 사용할 수 있는 문형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림 2> 결과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②



- (2) 가. 看(見)了那个人。
그 사람을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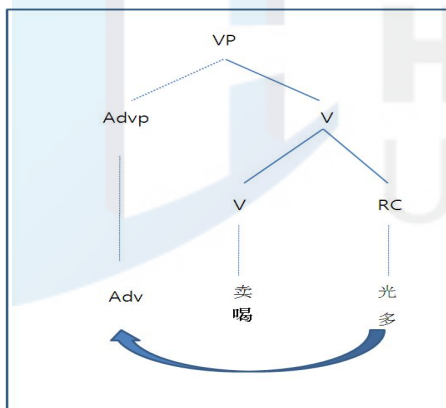
나. 找(到)了錢包。

지갑을 찾(았다).

<그림 2>의 보어는 앞의 동사와 결합하여 하나의 복합동사를 이루게 된다. 의미적으로 RC가 올라와서 V와 같이 붙어서 VRC로 된다. <그림 1>과 차이는 <그림 1>의 RC가 단독 동사로 되면서 V와 같이 VC구조가 되는데, <그림 2>의 RC는 동사가 아니고 조사라서 동사와 합성되어 VC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2가)-(2나)는 ‘看’, ‘找’는 동사에 동작의 결과가 내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가 표현되는 ‘見’, ‘到’와 합성되고 완성 시간 표현 ‘了’도 같이 표현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동작의 목적달성이 동사에서 구현되고 시제 ‘ㄴ’의 형식과 공유하며 이는 적절한 굴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때 한국어에서는 결과보어가 드러난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了’만 강조된다.

<그림 3> 결과보어가 부가구조를 만드는 경우①:



(3) 가. 衣服都賣(光)了。

옷을 (다) 팔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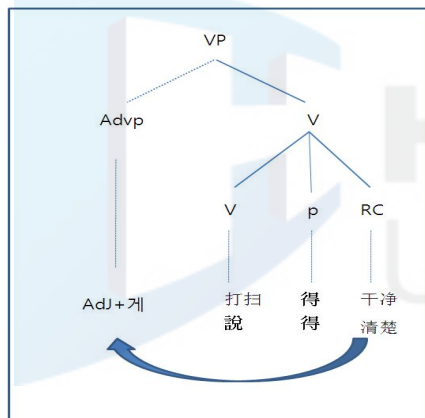
나. 朋友喝(多)了。

친구가 (많이) 마셨다.

<그림 3>은 보어가 동사의 앞으로 이동하여 LF에서 부가구조를 이루게 된다. 형태적으로 RC가 V로 이동하는데 한국어 구문에서는 RC가 부사어로 표현된다.

(3가)-(3나)에서는 RC가 정도부사로서 술어동사의 동작결과를 정도적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3가)는 결과보어 ‘光’은 행위의 결과 ‘조금도 남은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3나)는 결과보어 ‘多’가 동사 뒤에 오면, 그 동작이 이미 너무 많이 진행되었음을 나타낸다. ‘마신 결과’가 너무 많이 발생했다는 뜻이다. 이 뒤에는 항상 변화태 ‘了’가 온다. 그러므로 동사 뒤에 오는 결과보어 ‘多’는 언제나 변화태 ‘了’를 동반한다. 이상과 같이 중국어 RC는 의미적으로 동사 앞에 부가되어 동작 결과의 정도를 나타낼 수 있다. ‘V+RC’가 ‘완성결과’이라는 상황상은 (3)의 괄호에서 보듯이 한국어 동사구 중에서 ‘정도성 부사+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 문형과 대응한다.

<그림 4> 결과보어가 부가구조를 만드는 경우②:



(4) 가. 房間他打掃(得干淨)了。

그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그가 닦았는데, 닦은 결과가 깨끗했다.)

나. 他說(得清楚)了。

그가 (분명하게) 얘기했다. (그가 말한 내용이 분명했다.)

<그림 4>는 보어가 동사의 앞으로 이동하여 LF에서 부가구조를 이루게 된다. 형태적으로 RC가 V로 이동하는데 한국어 구문에서는 통사적으로 ‘Adj+게’와 같은 부사어로 표현된다.

(4가)-(4나)문장의 상태보어는 모두 형용사로서 술어동사의 동작결과이다. 여기서 ‘-게’의 RC가 ‘형용사+게’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때 한국어의 ‘-게’는 부사형 전성어미로 결과적으로 <그림 3>의 예와 같이 ‘부사어+동사’의 구성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 (4가)에서는 상태보어 ‘干淨’은 동작의 상태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4나)의 결과보어 ‘清楚’는 동작을 통하여 상태가 명백해졌음을 나타낸다. (4)의 경우로 (3)의 경우와 같이 동작결과의 정도성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어의 부사는 ‘이/히’와 ‘게’에 의해 모두 표현이 가능하며 (5)의 예에서 보듯이 결과보어에 대응하는 부사형의 선택에는 제약이 없다. 따라서 (3)과 (4)는 모두 결과보어가 한국어의 정도성 부사어에 대응되는 예로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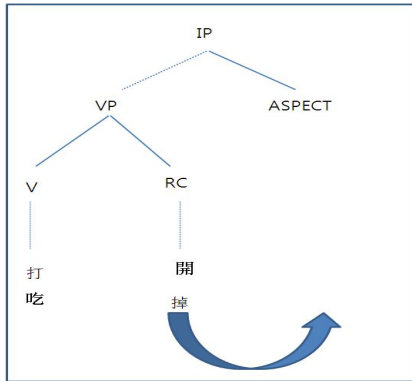
(5) 說(得明白)了。

가. (분명하게) 얘기했다.

나. (분명히) 얘기했다.

(5가)에서는 형용사에 ‘게’가 첨가된 ‘분명하게’가 쓰였으며 (5나)에서는 형용사 ‘이’가 첨가된 ‘분명히’가 쓰였다. (5가, 5나)의 부사 ‘분명히, 분명하게’가 모두 형용사 ‘분명하다’에서 온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 ‘분명히, 분명하게’는 모두 중국어 결과보어가 한국어 동사구와 대응되는 형식이다.

<그림 5> 결과보어가 상을 표현하는 경우:



(6) 가. 他打(開)窗戶

그는 창문을 밀(어 열다).

나. 吃(掉)飯了。

밥을 먹(어 버렸다).

<그림 5>는 RC가 LF에서 보어가 굴절소로 이동하여 동작성의 의미를 표현한다. 형태적으로 RC가 V로 이동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연결어미에 의한 동사구로 표현되는 경우이다.

(6가)의 결과보어 ‘開’은 ‘打(밀다)’의 행위결과 창문이 ‘開(열리다), 즉 “창문이 열리지게 되었다.”는 상적의미를 나타낸다. 행위의 결과 ‘밀어서 여는 것’을 나타낸다. (6나)의 결과보어 ‘掉’/ ‘光’은 행위의 결과 ‘조금도 남은 것이 없음’을 나타낸다. ‘V+RC’가 ‘상태결과’이라는 상황상은 한국어 동사구 중에서 보조 동사 ‘어(아), 게, 지, 고’를 사용할 수 있는 문형과 대응된다.

이상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어 보어구문은 한국어의 ‘부사어+동사’, 의존 동사 ‘어(아), 게, 지, 고’, 의존 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동사의 과거시제형과 대응할 수 있다.⁷⁾

첫 번째는 ‘부사어+동사’구문과 대응되는 중국어 보어는 결과보어가 있다.

7) 의존 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결과보어구문은 “V+過”에 대응된다. 이에 대해서 다음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한국어 부사어는 격조사의 종류가 복잡했듯이 부사어 역시 그 유형이 다양하지만 대부분 ‘부사, 체언+부사격조사, 동사나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나타난다 (김전호 2010:174).

- (7) 가. 선생님이 (일찍) 오셨다. 老師來(早). (대응O)
 나.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다. 孩子們正在公園里玩。 (대응X)
 다. 그가 방을 (깨끗하게) 청소했다. 房間他打掃(得干淨)了。 (대응O)
 라. 산이 보이도록 옷을 치우세요. 爲了看山請把衣服拿走。 (대응X)

(7가, 다)의 한국어 ‘부사어+동사’는 중국어 결과보어구문과 잘 대응할 수 있다. 반면에 (7나, 라)의 경우는 결과보어구문에 대응하지 않으므로 한국어에서도 ‘부사어+동사’가 아닌 독립된 ‘부사절’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부사어+동사’구문 중에서 부사어는 역시 ‘부사’와 ‘형용사의 부사형’으로 나타나면 중국어 결과보어구문의 많은 용례와 대응할 수 있다. 아래 <표 5>를 보면 이러한 대응 관계를 잘 살필 수 있다.

<표 5> ‘부사어+동사’의 중국어 대응표

형태	번호	한국어	중국어
부사+동사	1	(다) 썼다	寫(好)
	2	(꽉) 짜다	擰(緊)
	3	(잘) 해내다	搞(好)
	4	(일찍) 오다	來(早)
	5	(빨리) 가다	走(快)
	6	(멀리) 뛰다	跳(遠)
	7	(많이) 마시다	喝(多)
	8	(바짝) 말리다	晒(干)

	9	(잘) 알아들었다	听(明白)
	10	(진짜) 좋아하다	喜歡(极了)
	11	(몹시) 원망하다	恨(透)
형용사의 부사형+동사	12	(크게) 뜨다	睜(得大)
	13	(잘게) 자르다	切(得碎)
	14	(늦게) 일어나다	起(得晚)
	15	(터지게) 먹었다	吃(得撐)
	16	(빨강게) 되다	變(得紅)
	17	(귀엽게) 생겼다	長(得可愛)
	18	(정확하게) 보다	看(得清楚)
	19	(재미있게) 놀다	玩(得高興)
	20	(달콤하게) 먹다	吃(得正香)
	21	(깨끗하게) 청소하다	說(得明白)
	22	(분명하게) 이야기하다	掃(得干淨)

두 번째는 한국어 의존 동사 중에 선행어미 ‘-아/-어’, ‘-지’, ‘-게’, ‘-고’인 요소로 요구하는 것이 의존 동사 구문 표현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이 특성은 중국어 결과보어구문과 대응할 수 있다. 예문은 아래 (8)과 같다.

(8) 가. 열쇠를 잃(어 버렸다). 鑰匙丟(掉)了。

나. 방법을 생각(해 냈다). 方法想(出來)了。

다. 남은 밥을 냉장고 안에 넣어 두었다(놓았다). 剩飯放(進)冰箱里。

라. 밥을 만들(게 됐다). 飯做(成)了。

마. 바지에 우유를 쏟(고 말았다). 褲子上倒(上)了牛奶。

(8가)은 완료상의 표현으로 ‘아/어 버리다’가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완결’으로 의미가 나타낸다. (8나)는 완료상의 표현으로 선행 용언의 결과가 완

전 이루어진 ‘성취성’ 의미를 나타낸다. (8다)는 완료상의 표현으로 선행 용언의 동작이 완료된 후 결과가 지속되는 ‘유지성’ 의미를 나타낸다. (8라)는 완료상의 표현으로 선행 용언의 상태나 결과를 불러오는 ‘초래성’ 의미를 나타낸다. (8마)는 완료상의 표현으로 선행 용언의 동작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최종성’ 의미를 표현한다(박문자 2007:64-71). 의존 구성은 같은 의미 영역의 완료상에 대해 개별 항목들의 의미 차이를 중심으로 중국어 대응하는 부분을 제시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의존 동사는 중국어 결과보어와 대응 사항

항목	의미 영역	개별 의미	중국어 대응
-아/어 버리다	완료상	완결상	결과보어
-아/어 내다	완료상	성취상	
-아/어 두(놓다)	완료상	유지상	
-게 되다	완료상	초래상	
-고 말다	완료상	최종상	

한국어 의존 동사의 의미 종류를 보면 중국어 보어구문보다 더 다양하다. 한국어에서는 ‘완결, 성취, 유지’ 등을 표현하는데 중국어 결과보어구문은 어떤 동작의 결과만 의미를 나타낸다.

세 번째는 의존 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도 중국어 결과보어구문과 대응될 수 있다. 예문 (9)와 같이 볼 수 있다.

(9) 가. 我去(過)博物館。

박물관에 한 번 가 본 적이 있다.

나. 我(沒有)去(過)博物館。

박물관에 한 번도 가 본 적이 없다.

(9가)는 중국어 결과보어 중에서 경험의 의미를 표현해서 ‘동사+본 적이 있다’이다. (9나)의 ‘沒有’는 중국어 문장 성분 중에서 부사어가 되어 한국어 동사구 중에서 ‘동사+본 적이 있다’의 부정형 ‘동사+본 적이 없다’이다. 따라서 한국어에서 중국어 결과보어구문과 대응시키면 의존 명사 ‘-(으)ㄴ 적이 있다/

없다'을 사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한국어에서 동사의 과거시제형은 중국어 결과보어구문과 대응할 수 있다. 예문을 (10)과 같이 볼 수 있다.

(10) 가. 영화 ‘아리랑’을 (봤)어요. 看(完)電影阿里郎了。

나. 이 책을 읽(었)어요. 看(過)這本書了。

다.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⁸⁾ 牛頓發現(了)萬有引力。

라. 어제 비가 많이 (왔)다. 昨天下(了)很大的雨。

한국어의 과거시제 ‘-었’은 모두 ‘과거’라는 기본적인 시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완료’의 성질을 가진다. (10가, 10나)의 ‘-었’은 중국어 결과보어 ‘完’, ‘過’와 대응되어 있고 조사 ‘了’는 완료 의미를 가진다. (10다, 10라)의 ‘-었’은 중국어 결과 의미적인 ‘了’는 대응하여 결과보어가 된다. 중국어 조사 ‘了’는 결과보어 뒤에는 나타나는 것도 되고 완료 의미를 가진 ‘了’가 들어가서 결과보어가 충당될 수 있다. 한국어에서는 ‘了’가 들어간 문장에 과거시제 ‘었/았’을 붙이려 것이 자연스럽다.

2.3 방향보어(directional complement)와 한국어 동사구

방향보어는 동사 술어 뒤에 ‘來’, ‘去’, ‘進’, ‘出’, ‘上’, ‘下’, ‘上來’, ‘下去’ 등과 같은 방향동사가 쓰여 사람이나 사물 또는 일의 진행 방향을 보충 설명한다는 것이다(이병관 2010:163). 이들은 단순 방향보어와 복합방향보어 두 가지를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단순 방향보어는 ‘來, 去, 進, 出, 上, 下, 回, 過, 到’과 같이 9개로 구별되고, 복합방향보어는 ‘來, 去’를 의한 결합한 14개의 보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을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다(梁鴻雁 2009:242).

8) 이 예문은 이재성(2001:91)에서 가지고 왔다.

<표 7> 방향보어

단순방 향보어	進	出	上	下	回	過	到
복합방 향보어‘ 來’에 대한	進來 들어오다	出來 나오다	上來 올라오다	下來 내려오다	回來 돌아오다	過來 다가오다	到…來 돌아 오다
복합방 향보어‘ 去’에 대한	進去 들어가다	出去 나가다	上去 올라가다	下去 내려가다	回去 돌아가다	過去 다가가다	到…去 돌아 가다

위의 복합방향보어에서 가장 많이 같이 쓰는 동사 ‘走’, ‘跑’, ‘拿’, ‘搬’, ‘掉’ 등을 들 수 있다. 복합방향보어의 동보구조는 <표 8>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8> 복합방향보어의 동보구조

동사		복합방향보어	복합방향보어의 동보구조
走 (걷다)	+	上來(올라오다)	走上來(걸어 올라오다)
		上去(올라가다)	走上去(걸어 올라가다)
		下來(내려오다)	走下來(걸어 내려오다)
		下去(내려가다)	走下去(걸어 내려가다)
		進來(들어오다)	走進來(걸어 들어오다)
		進去(들어가다)	走進去(걸어 들어가다)
		出來(나오다)	走出來(걸어 나오다)
		出去(나가다)	走出去(걸어 나가다)
		回來(돌아오다)	走回來(걸어 돌아오다)
		回去(돌아가다)	走回去(걸어 돌아가다)
		過去(지나가다)	走過去(걸어 지나가다)
跑 (뛰다)	+	出來(나오다)	跑出來(뛰어 나오다)
		出去(나가다)	跑出去(뛰어 나가다)
拿 (들다)	+	上來(올라오다)	拿上來(가져 올라오다)
		上去(올라가다)	拿上去(가져 올라가다)
搬 (옮기다)	+	出來(나오다)	搬出來(옮겨 나오다)
		進去(들어가다)	搬進去(옮겨 들어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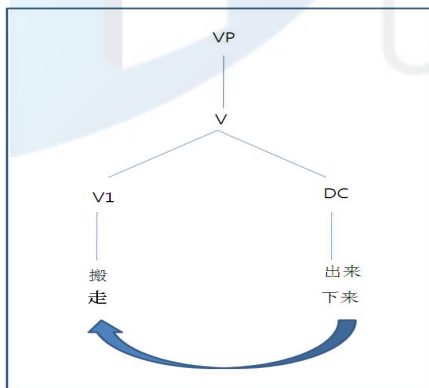
掉 (떨어지다)	+	下來(내려오다)	掉下來(떨어져 내려오다)
		下去(내려가다)	掉下去(떨어져 내려가다)

방향보어는 사물운동의 방향을 나타내기 때문에 방향보어로 이루어진 VDC 동보구조 중간에도 역시 ‘得’자를 넣을 수 없다. 기본 문장 형식은 ‘주어+술어 (동사+방향보어)⇒Sub+Pred(V+DC)’이다. 그런데 이를 중에서 한국어 동사구와 관계가 있는 부분은 복합 방향보어뿐이다. 여기서 이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VDC구조는 3가지 형식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먼저 방향보어는 사용한 기본 의미를 형식화 하는 다음 (11)과 같다.

(11) V₁ ---- V₂ (DC)
이동 방향

이들은 보어가 동사에 붙어 방향 의미로 사용하는 것들과 방향보어가 분리되어 목적어 뒤로 이동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아래 ‘來’에 대한 ‘V+DC’구조는 한국어 동사구의 대응 관계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6> 방향보어가 앞의 동사에 붙는 경우:



<그림 6>은 LF에서 보어가 동사에 붙어 동작의 방향의미가 된다. DC는 V로 올라와서 의미적으로 VDC구조로 된다. 단순 방향의미가 되어 있는 방향보

어는 동사와 합성하면 대상 목적어가 없어도 된다.

(12) 가. 從教室搬(出來)。

교실에서 옮겨 (온다).

나. 快点走(下來)。

빨리 걸어 (내려온다).

(12가)는 “안에서 밖으로 나온다. 말하는 사람이 장소 외에 있다.”는 의미를 나타내며, (11나)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온다,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을 떠난다.”의미를 나타낸다. 이때 한국어는 연결어미 ‘아/어’에 의해 복합동사구로 대응된다.

<그림 6>에서는 목적어가 없이 VDC구조가 나타나는 경우를 보았다. 다음에는 목적어가 있는 VDC구조를 두 가지로 볼 것이다. 먼저 복합 방향보어구조 중에서 동사에 목적어가 따를 때 목적어가 장소를 나타내면 반드시 복합동사가 분리되어 그 사이에 목적어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목적어가 만약 동사의 대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으면 복합 방향보어구조 뒤에 놓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먼저 복합동사가 분리되어 그 사이에 목적어를 들어가야 하는 경우를 살펴본다. 다음 (13)은 VDC구조 사이에 목적어가 개입하여 목적어를 중심으로 한 방향이 복합적으로 표현된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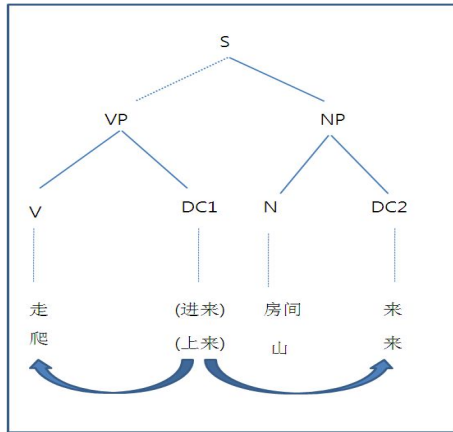
(13) $V_1 \text{ -- } V_2 \text{ (DC1) -- } N(\text{목적어}) \text{ -- } V_2' \text{ (DC2)}$

이동 방향

방향

(13)은 다음 <그림 7>과 같이 구조화하여 다시 표현할 수 있다.

<그림 7> 방향보어가 분리되어 목적어 뒤로 이동하는 경우:



<그림 7>은 복합방향보어가 나뉘서 하나는 동사로 인식되고 하나는 장소목적어 뒤로 이동한다. 의미적으로 ‘進來’, ‘上來’는 ‘走’, ‘爬’로 올라와서 이동되는데 형태적으로 이러한 형태적 변환은 D구조에서 S구조의 변환규칙에 의한 것으로 이러한 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 예문은 (14-15)와 같이 볼 수 있다.

(14) 가. 走(進)房間(來)。 (O) (방에 걸어 들어온다.)

나. 走(進來)房間。 (X)

(15) 가. 爬(上)山(來)。 (O) (산을 걸어 올라온다.)

나. 爬(上來)山。 (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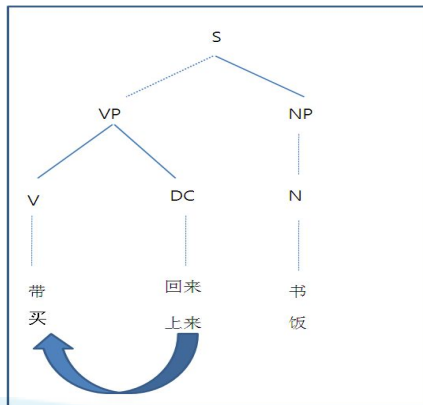
(14나)는 목적어가 장소에 표현하는 ‘房間’을 나타내면 반드시 ‘來’ 앞에 놓아야 하는 규칙이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14가)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온다.”는 뜻을 나타낸다. 동작 방향이 말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향해 있다는 의미이다. (15나)의 목적어가 장소에 표현하는 ‘山’을 나타내면 ‘山’은 ‘來’ 앞에 놓아야 하기 때문에 비문이 된다. 그런데 목적어가 와도 방향보어가 목적어 뒤에 이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목적어가 동사의 대상의 의미가 가지고 있으면 복합동사 뒤에 직접 놓아야 한다. 다음 (16)은 이를 도식화한 것이다.

(16) V₁ -- V₂ (DC) -- N(목적어)
 이동 방향

(16)을 구조화하면 <그림 8>과 같이 표현된다.

<그림 8> 방향보어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



<그림 8>에서 방향보어는 동사 뒤로 이동하여 방향의미의 동사 구문이 된다. NP는 목적어가 동사의 대상의 경우라면 NP는 항상 DC 뒤에 위치해야 한다. 예문은 (17)과 같다.

- (17) 가. 朋友帶(回來)書了。
 친구가 책을 들고 (돌아왔다).
 나. 買(上來)飯了。
 밥을 산서 (올라왔다).

(17가)-(17나)의 목적어 ‘書’, ‘飯’는 대응하는 동사 ‘帶’, ‘買’는 다 사람에게 대상이 되어 있다. 이 경우는 목적어는 DC 뒤에 나타낸다. 이때는 방향의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의 의미를 가진다.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은 중국어 방향보어구조는 대응하는 한국어 구문을 번역할 때 유사한 용법은 ‘고+동사’와 ‘아/어서+동사’를 나눠 있다. ‘고+동사’는 앞 선행 행위의 상태나 결과

를 유치하면서 뒤에 어떠한 행위가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어서+동사’는 선행 동작의 결과 상태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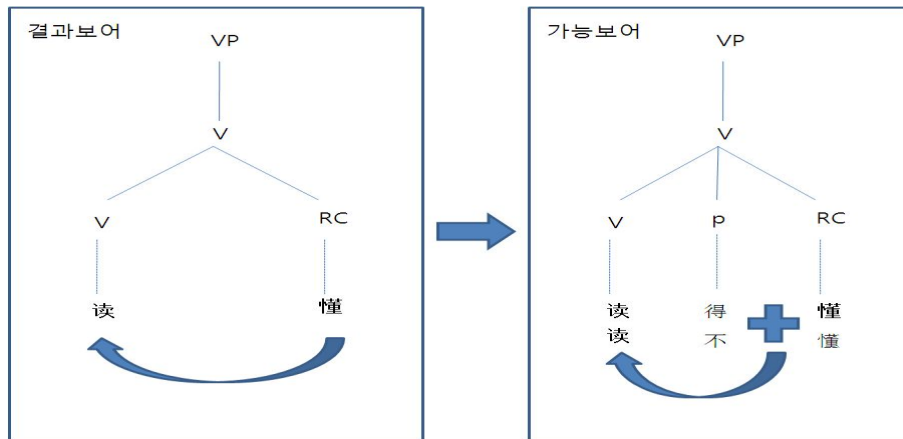
2.4 가능보어(probable complement)와 한국어 동사구

가능보어란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쓰인 동보구조 중간에 ‘得’나 ‘不’를 넣으면 가능보어를 포함하는 동보구조가 형성된다고 하였다(박기현 2007:186). 가능보어는 중국어사에 있어서 한대(漢代) 이후 출현하였다(蔣紹愚 1994:192-201). 본고에서는 가능보어는 한국어 동사구와 대응관계를 살피는 데 있어 가능보어의 위치에 의해 두 가지 특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첫째는 결과보어와 방향보어 중간에 ‘得/不’⁹⁾을 삽입하여 동작의 결과나 방향에 대해 가능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讀得懂/讀不懂’, ‘走得上來/走不上來’, ‘拿得上來/拿不上來’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得’와 ‘不’가 합성해서 ‘不得’만 형성되어 타동사 뒤에 나타내서 결과를 강조하는 부정 의미가 가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看不得’, ‘吃不得’, ‘買不得’ 등이 있다. 따라서 결과보어와 방향보어에 대해 ‘V+PC’의 구문은 ‘V’와 ‘PC’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得’와 ‘不’삽입하여 동작의 결과 의미에 대해 가능성을 표현하는 경우이다. 아래 <그림 9>의 구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첫째는 결과보어구문과 방향보어구문 중간에 ‘得/不’을 삽입해서 가능보어 되는 경우이다.

9) ‘得/不’는 ‘能/不能’가 가능보어 구조 중에 의미가 비슷하다. ‘得’, ‘能’는 긍정문 중에 나타내고 ‘不’, ‘不能’는 부정문 중에 나타낸다.

<그림 9> 결과보어 앞에 ‘得/不’을 삽입하면서 앞에 동사 붙어 가능보어 구조가 되는 경우:



(18) 他讀(懂)了這本書刊。(결과보어가 되는 구문)

그가 이 책을 읽어서 이해했다.

(19) 가: 他讀得(懂)了這本書刊。(가능보어가 되는 긍정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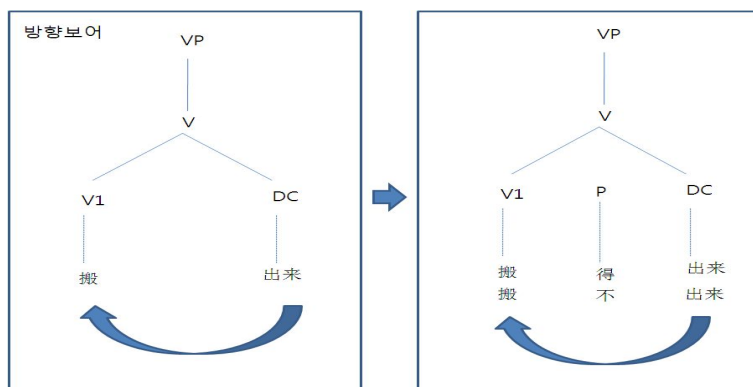
그는 이 책을 읽어서 이해할 수 있었다.

나. 他讀不(懂)了這本書刊。(가능보어가 되는 부정형)

그는 이 책을 읽어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림 9>는 결과보어 구조 중에 P(조사‘得’)'를 삽입해서 동사 뒤에 이동하여 긍정적인 가능보어 구조와 P(조사‘不’)'를 삽입해서 동사 뒤에 이동하여 부정적인 가능보어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19)를 보면 가능보어가 결과보어에 대해 대응한 문법은 한국어 ‘ㄹ/을 수 있다/없다’를 덧붙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음 <그림 10>은 중간에 ‘得/不’을 삽입해서 가능보어 되는 경우이다.

<그림 10> 방향보어 앞에 ‘得/不’을 삽입하면서 앞의 동사 붙는 경우:



(20) 他從教室搬(出來)桌子。(방향보어가 되는 구문)

그는 교실에서 책상을 옮겨 (나온다).

(21) 가. 他從教室搬得(出來)桌子。(가능보어가 되는 긍정형)

그는 교실에서 책상을 옮겨 (나올 수 있다).

나. 他從教室搬不(出來)桌子。(가능보어가 되는 부정형)

그는 교실에서 책상을 옮겨 (나올 수 없다).

<그림 10>의 방향보어 구문에서 ‘得’를 볼 수 없다. ‘得’과 ‘不’를 사용하여 가능보어로 만들 수 있다. (21)의 예를 보면 방향보어의 경우에도 가능보어가 되면 한국어 동사구와 대응된 ‘ㄴ/을 수 없다’로 표현된다.

그럼으로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쓰인 VC구조 중간에 ‘得’나 ‘不’를 넣으면 가능보어가 형성되는 VC구조가 된다. 이는 아래 <표 9>를 정리할 수 있다.

<표 9> 가능보어 형성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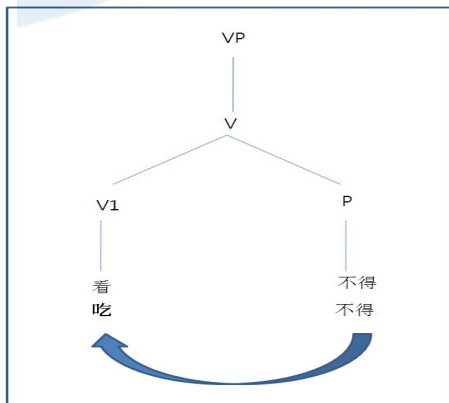
결과보어/방향보어		가능보어	
		‘得’넣기	‘不’넣기
결과 보어	讀懂	讀得懂	讀不懂
	(이해하다)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說清楚	說得清楚	說不清楚

	(분명하게 말하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다)	(분명하게 말할 수 없다)
	打開窗戶	打得開窗戶	打不開窗戶
	(밀어 열다)	(밀어 열 수 있다)	(밀어 열 수 없다)
방향 보어	走上來 (걸어 올라오다)	走得上來 (걸어 올라올 수 있다)	走不上來 (걸어 올라올 수 없다)
	搬出去 (옮겨 나가다)	搬得出去 (옮겨 나갈 수 있다)	搬不出去 (옮겨 나갈 수 없다)
	拿上來 (가져 올라오다)	拿得上來 (가져 올라올 수 있다)	拿不上來 (가져 올라올 수 없다)

<표 9>의 공통점은 ‘V+결과보어/방향보어’ 중간에 ‘得/不’들어가서 ‘V得/不C’구조가 된다. 이 ‘V得/不C’구조는 한국어 구문 중에서 ‘르/을 수 있/없다’로 대응한다.

둘째는 ‘得’와 ‘不’가 합성해서 ‘不得’만 되어 가능보어 형성되는 경우:

<그림 11> 가능보어가 앞에 동사에 붙는 경우:



<그림 11>의 ‘不得’는 타동사만 뒤에 이동되어 붙어 있다. 이런 표현은 중국어 가능보어 구조 중에서 ‘인정상의 허락 여부’를 나타내는데 동사 또는 형용사 뒤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王力(1954:290)). 예를 들면 ‘看不得’, ‘吃不得’, ‘買不得’, ‘高不得’, ‘低不得’ 등이 있다.

(22) 가. 看不得。(O) (볼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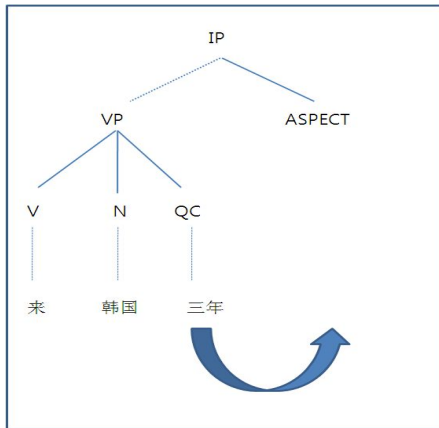
나. 看得不。(X)

(22)는 得’와 ‘不’가 합성할 때 부정성 부사 ‘不’가 조사 ‘得’앞에 나타나야 된다. 이 경우도 한국어 동사구는 ‘-(으)ㄴ 수 있다/없다’로 표현되므로 중국어의 모든 가능보어는 항상 한국어의 ‘-(으)ㄴ 수 있다/없다’에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2.5 수량보어(quantitative complement)와 한국어 동사구

수량보어란 순간동사 뒤에 놓여,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얼마 동안 지속되었는지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하였다(이병관 2010:169). 순간동사는 수량보어 구문 중에서 ‘來’(오다), ‘去’(가다), ‘離開’(떠나다), ‘畢業’(졸업하다), ‘下課’(끝나다) 등과 같이 동사의 지속을 나타낼 수 없는 동사를 말한다. 왜냐하면 ‘來’(오다)는 ‘오는 순간’에 동사의 목적이 완료되며, ‘去’(가다)는 ‘가는 순간’에 대한 동작의 목적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離開’(떠나다)는 ‘떠나는 순간’을 표현하여 ‘畢業’(졸업하다)는 ‘졸업하는 순간’을 표현하고 ‘下課’(끝나다)도 ‘수업이 끝나는 순간’에 각각 그 동사의 목적이 완료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순간동사는 지속하는 의미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수량보어가 들어가서 보충 설명해 주어야 한다. 문장 중 기본형식은 ‘주어+술어(동사+수량보어)⇒ Sub+Pred(V+N+QC)’이다. 이때 수량보어는 상의 의미를 가지는 굴절소로 이동하게 된다.

<그림 12> 수량보어가 상을 표현되는 경우:



(23) 朋友來韓國(3年)了。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

<그림 12>는 형태적으로 QC가 V로 이동하는데 한국어 동사구 ‘-(으)ㄴ 지 (Q) 되었다’의 같이 의존명사와 표현하게 된다. (23)은 순간동사 ‘來’는 다음에 수량보어가 나오면 그 수량보어는 동작의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화자가 말을 한 시점까지 경과한 시간을 나타낸다.

또한 어떤 중국어 수량사가 동사 뒤에 나올 때 조사 ‘了’ 앞에 연결하면 중국어 수량보어구문이 될 수 있다. 이때 한국어의 ‘부사어+동사’로 대응할 수 있다. 아래 (24)의 예문이 이에 해당한다.

(24) 가. 這書讀了三遍。

이 책을 세 번 읽었다.

나. 這書讀三遍。

이 책을 세 번 읽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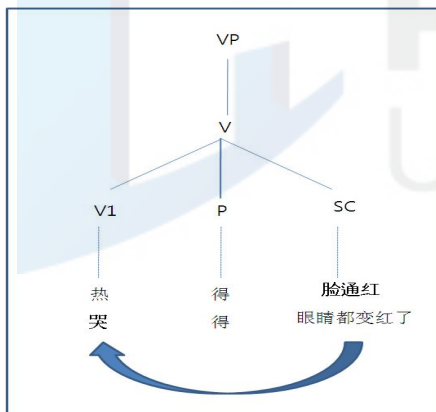
(24가)의 조사 ‘了’가 동사 뒤에 붙여 있어 ‘三遍’은 수량보어로 된다. 이때 한국어의 ‘부사어+동사’로 대응된다고 할 수 있다. (24나)는 조사 ‘了’가 없기 때문에 명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때는 ‘부사어+동사’에 ‘-어/아야 하다’

를 붙이면 명령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2.6 상태보어 (state complement)와 한국어 동사구

상태보어는 구조상으로 동작 동사를 중심으로 그 뒤에 ‘得’이 연결되어 표현된다. 이때 상태보어의 동사는 대부분 보어는 구체적인 동작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의 주체가 되거나, 기타 대상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다. 동보구조 중에 상태보어로 쓰여 정확한 동작에 대한 상태를 묘사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서도 상태보어는 어떤 변화 또는 새로운 정황이 일어난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문형은 상태보어가 나타내는 술어가 원인이 된 것으로 상태보어로서 주어의 상태를 세밀하게 표현한다. 상태보어는 문장 중에서 기본 형식은 ‘주어+술어(형용사/동사+‘得’+상태보어)⇒Sub+Pred(V+‘得’+SC)’는 기본 문형이다. 이런 문형은 보어가 앞 동사에 붙어 상태를 묘사와 설명해 주는 의미가 있다.

<그림 13> 상태보어가 앞의 동사 붙는 경우:



(25)가. 熱得(臉通紅)。

더워서 온 얼굴이 땀투성이다.

나. 女孩哭得(眼睛都變紅了)。

그녀는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

다. 小孩笑得(倒在床上)。

아이가 우스워서 침대 위로 쓰러졌다.

(25가)는 형용사가 술어를 출당되며, ‘得’자가 들어가서 바로 뒤에 동사구가 나타나서 상태보어 구문이 형성된다. ‘得’자가 들어가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연결하는 의미가 가지고 있다. 동사구‘臉通紅’(온 얼굴이 땀투성이다)는 상태보어가 되어 ‘熱’(덥다)의 상태를 묘사하고 ‘臉通紅’(온 얼굴이 땀투성이다)는 ‘熱’(덥다)에 의한 주어의 상태를 묘사한 것이다. (25나)의 동사구 ‘眼睛都變紅了’(눈이 빨개졌다)역시 동사 ‘哭’(울다)에 대한 주어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5다)도 ‘倒在床上’(침대 위로 쓰러졌다)는 ‘笑’(우스다)의 원인에 의해 결과된 상태를 묘사한다. 결론적으로 ‘得’을 이용한 상태보어구문은 동작동사가 발생시킨 사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상태보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는 ‘아/어서’(선행문은 후행문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뜻으로 사용)를 이용하는 구문에 대응된다.

중국어 가능보어와 상태보어 구문에서 모두 ‘得’자를 들어가서 형성되고 있지만 아래 <표10>과 같이 차이점은 보이고 있다.

<표 10> 가능보어와 상태보어의 비교

	가능보어	상태보어
정의	동작 동사의 가능성을 보충설명	동작 동사의 상태를 보충설명
품사	보어의 성분이 동사, 형용사이다.	보어의 성분이 구문이다.
구조	결과보어나 방향보어 중간에 ‘得’자를 들어간다.	형용사/동사+‘得’+상태보어
의미	①가능보어의 어휘의 의미가 명확히 존재한다. ②동작 동사의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이 가지고 있다.	①상태보어의 의미와 달리 추상화되어 포착하기 힘들다. ②동작 동사의 상태적으로 결과를 나타낸다.
기능	정도부사‘得’, ‘不’를 써서 결과를	동사구를 써서 상태 정도를 보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	충하는 역할을 한다.
예	讀得懂 走得上來	熱得(臉通紅) 女孩哭得(眼睛都變紅了)

‘-아/어서’(이유표현)은 중국어 보어구문과 대응하려면 문법적 정보에 대해서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달라야 한다.

(26) 가. 비가 와서 나갈 수 없다. 雨下(得不能出門)。

나. 날씨가 너무 더워서 기분이 안 좋다. 天氣熱(得心情不好)。

다. (내가) 친구를 만나서 (내가) 돈을 많이 썼어요. 因為見朋友錢全花了。

라. 동생이 친구에게 맞아서 (동생이)코피가 났어요. 因為弟弟和朋友撞了，弟弟的鼻血流出來了。

(26가, 나)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다르고 중국어 상태보어구문과 대응되어 있다. (26다, 라)에서는 선행절과 후행절의 주어가 동일한 문장이기 때문에 중국어 보어구문과 대응할 수 없다.

둘째는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앞서야 한다.

(27) 가. 그녀는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 女孩哭(得眼睛都紅了)。

나. 더(워서 온 얼굴이 땀투성이다). 熱(得臉通紅)。

다. *내일 친구가 와서 방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明天朋友來，收拾干淨房子。

라. *어젯밤에 게임을 해서 야구를 못 봤다. 昨天玩遊戲，沒能看了棒球。

(27가, 나)는 선행절의 사건이나 상황이 후행절의 사건이나 상황보다 앞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상태보어와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27다)는 후행절의 사건이 선행절의 사건보다 앞서며 (27라)는 선 • 후선행절의 사건이 동시 일어나서 상태보어구문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상태보어구문이 될 수 없는 경우는 특별히 한국어의 동사구와 대응하는 표현으로 번역하기 힘들다.

2.7 정도보어(extensive complement)와 한국어 동사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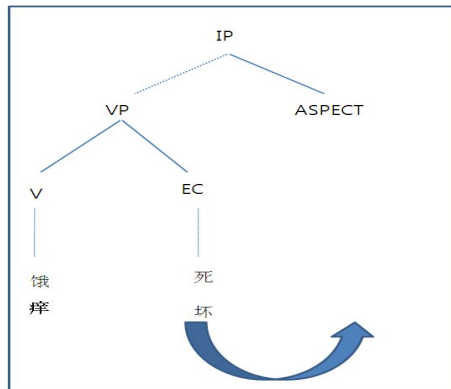
정도보어란 동사나 형용사 뒤에 놓여 동작이나 상태의 정도를 보충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 정도보어에는 형용사가 주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형용사는 ‘死’, ‘坏’이다. 정도보어 ‘死’, ‘坏’는 상태가 극도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주로 느낌과 심리활동을 나타내는 동사와 형용사의 뒤에 쓰인다. ‘死’의 ‘坏’보다 정도적인 의미를 보면 더 강하다. 정도보어 ‘死’, ‘坏’로 구성된 정도식은 단독으로 쓸 수 없다. 만약 단독으로 말하거나 술어가 된다면 이 뒤에 변화적인 의미 형태 ‘了’를 반드시 이 동보구조 뒤에 붙어야 한다(위수광 2004:42). ‘死’는 단독으로 나올 때 예문 (28)과 같이 볼 수 있다.

- (28) 가. 他死了。(O)
 그가 죽었다.
 나. 他死。(X)
 그가 죽었다.

(28가)의 ‘死’가 단독으로 나타나서 서술어가 된다. 이런 경우가 왕료상 의미 ‘了’가 반드시 동사 뒤에 나타나야 한다. (28나)는 ‘了’가 없기 때문에 중국어 문법에서 비문이 된다.

정도보어 ‘极’, ‘死’는 언제나 변화태 ‘了’를 동반한다. 기본 문형은 ‘주어+술어 (형용사/동사+정도보어)⇒Sub+Pred(V+‘得’+EC)’이다.

<그림 14> 정도보어가 상을 표현하는 경우:



(29) 가. 我肚子餓(死)了。

나는 배가 고파 (죽겠다).

나: 身上瘡(坏)了。

몸이 가려워 (죽겠다).

<그림 14>의 형태적으로 RC가 V로 이동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의존 동사 ‘-아 /어 죽겠다’를 덧붙여 사용한다. 이때 ‘死’와 ‘坏’ 사이에 의미적 차이는 정밀하게 표현되기 힘들다.

또한 어떤 한국어의 ‘부사어+동사’는 중국어 정도보어구문과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30)과 같이 볼 수 있다.

(30) 가. 飯吃得太多。

밥을 많이 먹었다.

나. 天气熱得很。

날씨가 너무 덥다.

(30)에서는 ‘得’자를 넣어 형용사 ‘太多’, ‘很’가 정도보어가 된 예이다. 만약에 ‘得’자가 없을 때 동사 뒤에 정도형용사가 나오면 결과보어구문이 된다. 예를 들어 (31)과 같다.

(31) 가. 做得好。

잘 만들었다.

나. 做好。

잘 만들었다

(31가)는 ‘得’자가 들어가서 형용사의 정도보어구문이 된다. (32나)는 ‘得’자가 없기 때문에 ‘好’는 동사 ‘做’의 결과 의미를 나타낸다. 따라서 ‘得’자가 결과보어구문에 들어가면 형용사가 정도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고 정도보어구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도보어구문은 역시 한국어의 ‘부사어+동사’에 대응시켜 설명할 수 있으며, (31)의 예와 같이 이러한 정도보어구문은 결과보어구문과 의미상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한국어 동사구에 대응되는 양상도 ‘부사어+동사’로 함께 표현할 수 있다.



제 3 장 중국 내 한국어 동사구 제시 분석

3.1 중국의 한국어 교재 현황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중국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과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구분된다(최희수 2005:212). 본고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교재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중국에서 한국어 교육은 1940년대부터 시작하여 이미 6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 1992년 중한수교가 시작되어 지금은 중국 국내 대학교에서 한국어 학과를 설치한 대학은 32개에 달한다.¹⁰⁾ 따라서 많은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교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¹¹⁾ 姜信道(1991)의 「基礎韓國語」(기초한국어) 교재를 시작으로 1996년 북경대학교와 25개 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標準韓國語」(표준한국어)를 출판하였다. 이 교재는 대부분의 한국어과에서 주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2000년 북경대학교 조선문화연구소는 한국어과 전공 학습자들을 위해 전문적으로 개발된 「韓國語」(한국어) 교재를 발간하였다. 연변대학교 교수 崔義秀는 2000년 「初級韓國語」(초급한국어)교재를 출판하고 이어서 2001년 「中級韓國語」(중급한국어) 및 「高級韓國語」(고급한국어)도 발간하였다(왕미 2010:12-15). 2005년부터 한류의 영향으로 사람들은 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현상이 많아져서 각 한국어학원들의 자기 교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 중 「輕松學韓語」(편하게 배우는 한국어)가 대표적이다. 이상의 내용을 간추리면 대표적인 종합류 한국어 교재는 현재 학원에서 많이 선택하는 총3권인 「標準韓國語」 및 총6권인 「輕松學韓語」와 대학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총4권인 「韓國語」를 들 수 있다. 세 교재 모두 한국어 어휘·문법 체계를 기준으로 다양한 주제와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10)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통계 참고 일부 통계에서는 40여개로 집계되기도 한다.

11) 손정일(2005:242-257)에서는 중국에서 출판된 한국어 교재는 160여 종에 이르고, 그 중에서 사전류는 37종, 회화 관련 교재는 36종, 종합교재류는 26종, 어휘 문법관련 교재는 15종, 경제무역 관련 교재는 9종, 번역 관련 교재는 7종, 여행 관련 교재는 10종, 강독 관련 교재는 5종 및 기타, 12종으로 조사 보고하고 있다.

<표 11> 분석 대상으로 선정된 중국의 한국어 교재 목록

교재명	개발	출판사	발간년도
「標準韓國語」 (표준한국어)	북경대학교와 25개 대학교 등 개발	북경대학교	1996
「韓國語」 (한국어)	북경대학교 조선 문화 연구소 개발	민족출판사	2000
「輕松學韓語」 (편하게 배우는 한국어)	가나다 한국어학원 개발	북경대학교	2006

3.2 교제에서 나타나는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비교 분석

교재 분석을 위해 교재에 실려 있는 교수요목을 중심으로 각 교재별로 제시된 문법에서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설명, 내용 설명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1 제시 설명

본고에서는 분석의 대상으로 「標準韓國語」1~3 교재, 「韓國語」1~4 교재, 「輕松學韓語」1~6 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를 각 교재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標準韓國語」의 제시 설명을 살펴보겠다.

<표 12> 「標準韓國語」의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한국어 동사구	항목	「標準1」	「標準2」	「標準3」
부사어+동사 ¹²⁾	잘+V	제14과		
	많이+V	제16과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제20과	
	—아/어 내다			제16과
	-아/어 두다			제15과
	-아/어 놓다			제12과
	—게 되다		제11과	
	—고 말다			제11과
	—아/어 죽겠다	x	x	x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제1과	
	—(으)ㄴ 수 있다/없다		제2과	
	—(으)ㄴ 지 됐다		제6과	
복합동사 ¹³⁾	-아/어 가다/오다 (돌아가다)	제20과		
동사의 과거시제형	V+왔다/ 였다/ 였다	제15과		
아/어서(이유) 표현	—아/어서(이유)	제23과		

이상 동사구를 제시하는 순서를 보면 ‘잘+V’ 14과의 어휘(단어)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으나 ‘많이+V’ 16과의 보충단어 단계에서 나타난다. 이런 ‘부사어+동사’는 「標準韓國語1」에서는 모두 문법적 설명이 빠져 있다. 각 의존 동사들이 제시된 순서를 살펴보면 난이도별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존 동사의 경우는 ‘—아/어 버리다’와 ‘—게 되다’만 중급 20과와 11과에서 나타나는 반면에 그 외의 것은 모두 고급에서 나타난다. 그리고 ‘—아/어 죽겠다’는 교재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표현을 놓치고 있다.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 지 됐다’는 모두 중급의 기본 문형에서 나타나고 제시와 설명은 중국어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수 있다/없다’, ‘—

12) ‘부사어+동사’중에서 ‘잘, 다, 매우’ 등이 많지만 여기서는 2권 교재에서 자주 나타나는 부사 ‘잘’, ‘많이’만 연구해 보겠다.

13) 여기서는 교재에서 먼저 나타나는 복합동사 ‘돌아가다’로 조사를 선정했다. 「韓國語」와 「輕松學韓語」도 ‘돌아가다’로 조사해 보겠다.

(으)ㄴ 지 됐다’는 초기 한국어 표현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수요목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제시하면 좋을 것이다. 석지영(2011:39)은 의존명사 교육은 실생활에서 초기 사용 빈도가 높은 것을 초급 단계에서 반드시 제시하여 학습자가 부담감을 줄이고 초급 의사소통에 자연스럽게 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최윤곤(2010:167)에서도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 지 됐다’는 한국어 교육 초급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제시되는 교수요목이라고 하였다.

복합동사 ‘-아/어 가다/오다’는 초급과 중급에서 제시되어 있다. 구체적인 활용 용법은 제시하지 않고 어휘(단어) 단계, 보충단어 단계에서 단어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초급 「標準韓國語1」 어휘(단어) 단계에서 나타나는 복합동사는 ‘걸어오다’, ‘갈아타다’, ‘돌아가다’가 있으며 초급 「標準韓國語1」의 보충단어 단계에서 나타나는 복합동사는 ‘가져오다’, ‘들어오다’, ‘들어가다’가 있다. 그리고 「標準韓國語2」의 보충단어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는 복합동사 ‘돌아오다’, ‘뛰어가다’뿐이다. 그러므로 복합동사 습득에 대한 형태적인 변화에 대해 연계적으로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뜻을 알게 되더라도 이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법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 제시된 복합동사들은 중국어에 대응하는 보어와 함께 제시하여 의미와 활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었다/ 였다’와 ‘-아/어서’(이유표현)은 초급 15과, 23에서 자세히 제시하고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었다/ 였다’에 대해 “用于謂詞詞干与詞尾之間，表示過去時制。与陳述形詞尾相連‘-았/었습니다’，与疑問形詞尾相連‘-았/었습니다까’。詞干以‘아, 오’結尾時，其過去時制爲‘았습니다다(까?)’，其他情況爲‘었습니다다(까?)’。以‘하’結尾的謂詞采取‘하었습니다(까?)’的形式。”¹⁴⁾라고 문법의 용법, 형식을 설명하면서 대화형식의 예문을 함께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아/어서’(이유)표현도 ‘용법, 의미, 비문 설명’에 대한 “連接詞尾 ‘아/어서’用于動詞，形容詞的詞干

14)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술어어간과 어미 사이에 과거시제의 의미를 표현한다. 평서문에서 ‘-았/었습니다’로 연결해서 쓰고, 의문문에서 ‘-았/었습니다까’와 연결해서 쓴다. 어간은 ‘아/오’이면 이의 과거시제는 ‘았습니다다(까?)’로 쓰고, 기타상황에서 ‘었습니다다(까?)’로 쓰고, ‘하다’는 어미이라면 ‘하었습니다(까?)’의 형식을 쓴다.” 「표준한국어1」의 15과에서 나타난다.

后, 表示原因, 理由。‘-아/어서’不予表示時制的連用, 也不能用于命令句和共動句中。在‘名詞+이다’后常用‘-라서’, 相当于漢語的由于, 因爲”¹⁵⁾라고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역시 대화문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있다.

「韓國語」1~4 교재에서는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가 1~3교재에 제시되어 있다. 「韓國語4」는 주로 한국 문화 모습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문법적 설명은 자세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

<표 13> 「韓國語」의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한국어 동사구	항목	「韓國語1」	「韓國語2」	「韓國語3」
부사어+동사	잘+V	제14과		
	많이+V	제15과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제8과
	—아/어 내다		제13과	
	-아/어 두다		제7과	
	-아/어 놓다		제2과	
	—게 되다		제3과	
	—고 말다		제12과	
	—아/어 죽겠다	X	X	X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제25과		
	—(으)ㄴ 수 있다/없다	제17과		
	—(으)ㄴ 지 됐다	제16과		
	-아/어 가다/오다 (돌아가다)	제18과		
복합동사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었다/ 였다	제14과		

15) 이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결어미 ‘아/어 서’는 동사나 형용사 뒤에 원인이나 이유를 표현한다. ‘아/어서’는 시제와 같이 쓰면 안 되고 명령문이나 청유문에서 써도 안 된다. ‘명사+이다’뒤에 ‘-라서’로 쓴다.” 「표준한국어1」의 23과에서 나타난다.

아/어서 (이유) 표현	—아/어서(이유)	제17과		
--------------------	-----------	------	--	--

「韓國語」의 제시와 설명 방식을 보면 모두 중국어로 대응 설명되어 있으며, 제시 용어는 특별히 한국어 문법 체계를 사용하여 중국어로 번역하는 설명 방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면 ‘連結語尾(연결어미)’, ‘慣用語(관용어)’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대부분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는 초급 단계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의존 동사는 중, 고급 단계에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부사어+동사’와 ‘복합동사’는 신 단어로 제시되어 있으며 다른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는 모두 문법과 관용어에서 제시되어 있다. 복합동사들은 급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돌아가다’는 초급 「韓國語1」의 18과에서 나타나는 반면 ‘돌아오다’는 중급 「韓國語2」의 13과에서 제시됨으로써 두 동사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어 복합동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다.

의존 동사의 경우는 ‘—아/어 버리다’는 고급 「韓國語3」의 8과에서만 나타나고 별다른 설명이 없이 문형의 반복으로 학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는 「標準韓國語」와 같이 다루지 않고 있다.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 지 됐다’에 대한 「標準韓國語」가 모두 중급에서 이를 다루는 반면에 「韓國語」에서는 모두 초급의 25과, 17과, 16과에서 나타난다. 이 설명이 중급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의존명사에 대한 「韓國語2」와 「標準韓國語1」의 난이도가 각각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사의 과거시제형’에 대한 초급 14과에서 나타나며 설명은 자세하지는 않으나 중국어로 된 대응 예문과 연습문제는 비교적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다. ‘—아/어서’(이유)표현은 초급 17과에서 제시되어 있는데 문법을 설명용어는 너무 어려워 초급 학습자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문법을 설명은

“用于用言語干或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先語末語尾‘-시-/-으시-’之后，表示原因，方式或時間的先后關係。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ㅏ,ㅑ’時用‘-아서-’，用言語干最后音節爲‘ㅏ,ㅑ’外的其他音節是用‘-어서’，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여서’。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后用。除在叙述格助詞后邊使用的情况外‘-아서/-어서/-여서’可縮略爲‘-아/어/여’，但其意義相同。”라고 하였다.16) 이런 ‘용언, 선어말어미, 격조사’라는 기술용어를 이용하면 초급 학습자들이 이해가 너무 힘들다. 따라서 실제로 초급 학습자에게 간단하게 용어로 이용하여 용법을 제시하면서 중국어 구문과 대응해서 같이 제시, 설명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輕松學韓語』교재는 1~6권 있는데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는 1~5권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교재는 중국인 학습에게 학원에서 편하게 습득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한 단원에서 어휘와 문법 유형은 적당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초, 중, 고급 각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교재에 비하여 많은 권수를 다룬다.

<표 14> 『輕松學韓語』의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의 제시

한국어 동사구	항목	「輕松1」	「輕松2」	「輕松3」	「輕松4」	「輕松5」
부사어 +동사	잘+V	제2과				
	많이+V	제10과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제9과	
	—아/어 내다					제8과
	-아/어 두다				제4과	
	-아/어 놓다			제25과		

16) 이 내용은 “용언어간이나 격조사 ‘-이다’의 어간, 선어말어미 ‘-시-/-으시-’뒤에, 원인, 방식, 시간의 선후의 의미를 표현한다. 용언어간 뒤에 ‘ㅏ,ㅑ’라면 ‘-아서-’로 쓰고, ‘ㅏ,ㅑ’외의 경우는 ‘-어서-’로 쓰고, 용언어간 뒤에 ‘하’라면 ‘-여다-’로 쓴다. 격조사 뒤에 사용의 ‘-아/어/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의미가 똑같게 나타난다. 『표준한국어1』의 14과에서 나타난다.

	—게 되다			제10과		
	—고 말다					제9과
	—아/어 죽겠다			제12과		
의존명 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제11과			
	—(으)ㄴ 수 있다/없다		제1과			
	—(으)ㄴ 지 됐다		제30과			
복합동 사	-아/어 가다/오다 (돌아가다)		제24과			제22과
동사의 과거시 제형	V+왔다/ 었다/ 였다	제8과				
아/어서 (이유) 표현	—아/어서 (이유)		제4과			

「輕松學韓語」는 제시와 설명 방식을 보면 단원의 학습 목적은 제시되어 있으나, 문법 설명은 다른 교재에 비하여 체계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부사어+동사’의 의미는 제시되어 있지만 ‘잘’, ‘많이’의 품사가 구체적 설명되지 않아서, 학습자가 문장 구조 파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중국어 보어와 관련된 의존 동사들은 중, 고급에서 나타나며 난이도에 따라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어 놓다’, ‘-게 되다’, ‘-아/어 죽겠다’는 동시에 중급 「輕松學韓語3」의 25과, 10과, 12과에서 제시되어 있으며, ‘-아/어 버리다’, ‘-아/어 두다’는 중급 「輕松學韓語4」의 9과와 4과에서 나타나고 ‘-아/어 내다’와 ‘-고 말다’는 고급 「輕松學韓語4」의 8과와 9과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를 보면 「輕松學韓語」교재에서 의존 동사 요목의 난이도를 많이 고려하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의존 명사 ‘—(으)ㄴ 수 있다/없다’는 초급 「輕松學韓語2」 제1과에서 먼저 제시되어 있으나 ‘ㄴ 수’의 형태적 변화에 대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지 됐다’는 초급 11과와 30과의 문법 설명 단계에서는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형들은 연습문제에서 충분히 반복하여 숙달하도록 하였다.

복합동사 ‘돌아가다’에 대한 어휘적으로 초급2의 24과에서 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고급의 22과에서 ‘-아/어/여 가다/오다’에 대한 문법 설명도 함께 제시하고 있다. 이런 문법적 제시는 「輕松學韓語」에만 나타난다. 그런데 고급 22과에서 문법적인 ‘-아/어/여 가다/오다’에 대한 설명은 초급 24과의 어휘적인 ‘돌아가다’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과거시제형 ‘V+왔다/ 였다/ 었다’, ‘-아/어서(이유표현)’는 초급 「輕松學韓語 1」의 8과에서와 초급 「輕松學韓語2」의 4과에서 제시되어 있고 아울러 설명과 예문도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다.

3.2.2 내용 설명

내용 설명은 본고에서 문법 설명 방식과 예문제시 방법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¹⁷⁾ 교재마다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가 다르게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어 보어구문과 관련된 한국어 동사구를 하나씩 살펴보고자 한다.

① 부사어+동사

17) 이미혜(2005:104)에서는 한국어 교육문법을 기술할 때 5가지를 설정하였다. 1. 교육에 필요한 사항으로 적절하게 단순화해야 한다. 2.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문법 항목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여 주어야 한다. 3. 형태, 의미, 화용 정보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4. 설명, 용어 사용 등 기술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5. 학습자에게 친숙한 개념으로 기술해야 한다.

<표 15> 교재별 ‘부사어+동사’의 내용 설명

	항목	「標準韓國語」	「韓國語」	「輕松學韓語」
부사어+동사	잘+V	(副)好	(副)好好地, 很好地, 正 好	好
	많이+V	(副)多	(副)多, 多多 地	很多

‘부사어+동사’에 대한 설명은 세 교재 모두 예문 제시가 거의 없다. 「標準韓國語」와 「韓國語」는 ‘잘’, ‘많이’가 모두 어휘 단계에서 단순히 중국어로 ‘好’, ‘多’로 번역하고 품사를 제시하고 있다. 반면에 「輕松學韓語」는 의미만 제시하고 품사는 설명하지 않는다. 세 교재에서 ‘부사어+동사’에 대한 공통점을 주목하면 의미를 제시하기만 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서 학습자가 실제상황에서 적용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의미를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부사어+동사’구문의 대응관계를 보여주면 학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잘 먹었다’와 ‘많이 읽었다’의 중국어 번역문은이다. 부사 ‘잘’, ‘많이’와 대응하는 중국어는 형용사 ‘好’, ‘多’인데 이를 단순히 뜻으로 전달하지 않고 중국어 보어구문인 ‘吃得好’나 ‘讀得多’로 예문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학습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런데 「韓國語」에 제시된 ‘好好地’, ‘很好地’, ‘正好’로 설명하면 중국어에서 ‘我好好地吃飯’는 어색한 문형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어 ‘부사어+동사’의 구문을 오해할 수 있다.

②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표 16> 교재별 ‘-아/어 버리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	X	깜빡 잊어버리다

韓國語		(一下子忘掉了)
「韓國語」	慣用型, 表示動作徹底完了	(1) 그 일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这么快就把那件事做完了。 (2) 남기지 말고 몽땅 먹어 버려라. 別剩下, 都吃掉。 (3) 그는 명예와 권리를 내던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他拋棄了名譽和權力回到了故鄉。
「輕松學韓語」	助動詞, 動詞詞干后, 表示動作徹底結束。	(1) 역에 가 보니까 기차는 벌써 떠나 버렸더군요. (2) 내가 벽에 붙인 포스터를 누가 떼 버렸어요? (3) 먼저 가 버리면 안 됩니다. (4) 사표를 내 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예요. (5) 술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다 마셔 버립시다. (6) 무더운 여름이 빨리 지나가 버렸으면 좋겠어요.

문법 설명을 비교하면 「標準韓國語」는 문법 설명이 거의 없이 어휘 부분에서 한 문장이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제시 방식은 학습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다. 「韓國語」의 의존 동사의 경우는 관용형으로 제시된 중국어로 그 뜻을 제시하여 의미만 설명한다. 「輕松學韓語」교재는 이를 조동사로 소개하고 그 문법적 위치와 의미를 설명한다.

예문을 비교하면,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에 대한 「標準韓國語」의 예문 설명 방식은 간단하게 한 문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학습자가 관련 문법을 활용하기가 힘들다. 「韓國語」의 경우는 한국어 예문과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문을 같이 제시하면서 한국어 예문 밑에 특별히 기호를 표시하

였기 때문에 학습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또한 각 예문들은 한국어의 의존 동사에 대한 중국어 결과보어구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의존 동사와 중국어 보어 구문 사이에 대응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 기호를 삽입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그 일 벌써 다 끝내_버렸어요?”에 대해서 중국어 보어 구문은 “这么快就把那件事做完了。”와 같이 표시하면 좋을 것이다. 『輕松學韓語』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지 않아서 의존 동사의 특징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문장의 종류를 충분히 고려하여 ‘감탄문, 의문문, 평서문, 청유문’을 나눠서 제시하여 문형의 활용을 돕고 있다.

③ 의존 동사 ‘-아/어 내다’

<표 17> 교재별 ‘-아/어 내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동사 어간 뒤에 이어져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동작을 끝까지 이루어 낸다는 주관적인 의미를 더해 준다.	(1) ㄱ: 어떻게 그 힘든 일을 다 해 내셨습니까? 那么累的工作怎么做完的? ㄴ: 다 도와 주신 덕분입니다. 多亏您的帮忙。 (2) ㄱ: 교통사고 뺑소니범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能抓住交通肇事逃逸犯吗? ㄴ: 제가 꼭 잡아 내고 말겠습니다. 我一定要抓住他。 (3) ㄱ: 환자의 마음이 약해져서 큰일이에요. 病人的心里承受能力弱是个大问题。

		ㄴ: 강한 분이니까 잘 견뎌 낼 겁니다. 他的心理承受能力強，能堅持過來的。
「韓國語」	慣用型，用在他動詞后，表示動作做到底，最后得到某种結果。	(1)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 어...낸 좋은 단어가 있잖아 요? 韓國人不是也制造出不錯的 的詞嗎? (2) 글썄요. 아무리 기억해...내려 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 요. 是呀，不管怎么想都想不 出來。 (3) 처음 몇 달만 견디어...내면 차츰 습관이 될 겁니다. 只要能熬過去几个月，就 會逐漸習慣的。
「輕松學韓語」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어 려운 과정을 거쳐 그 동 작을 끝냄’을 의미한다. 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나올 때 사용한 다. 그 동작의 ‘완수나 종 결’을 의미하므로 ‘놓다, 두다, 가지다’ 등 ‘보유’를 의미하는 동사와는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	(1) 아무리 힘든 고통도 참아 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2)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확답 을 받아내려고 왔어요. (3) ‘세종 산업’은 이번에 10년 연구 끝에 개발해 낸 신제품을 선보였다.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교재는 모두 문법 설명은 한국어로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설명 방식은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체계를 위주로 하여

한국어 문법 기술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어 내다’는 고급 「輕松學韓語5」단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더 어려운 말로 기술하고 있다. 그리고 문법을 설명할 때 ‘놓다, 두다, 가지다’ 등 ‘보유’를 의미하는 동사와는 같이 사용되지 않는 설명은 덧붙임으로써 학습자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예문 부분은 「標準韓國語」의 경우 3개 대화를 통해 문법적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각 3개 문장만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標準韓國語」와 「韓國語」의 예문은 모두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문과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輕松學韓語」의 예문은 한국어 구문만 제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예문을 제시 방법은 학습자의 흥미를 높이기 힘들다. 그러나 「標準韓國語」와 「韓國語」의 각 예문은 모두 중국어 보어 구문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의미적 문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응 기호를 삽입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標準韓國語」의 예문은 “제가 꼭 잡아 내고 말겠습니다.”에 대해서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 “我一定要抓住他。”와 같이 표시하면 문법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이다.

④ 의존 동사 ‘-아/어 놓다’

<표 18> 교재별 ‘-아/어 놓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동사 뒤에 연결되어 어떤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낸다.	(1) ㄱ: 조금 전에 내가 읽던 책을 못 봤어요? 你沒看到我剛才讀的那本書嗎? ㄴ: 책꽂이에 꽂아 놓았어요. 給你在書架上插好了。 (2) ㄱ: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까? 定休假的計劃了嗎? ㄴ: 휴가 계획은 벌써 세워 놓았습니다.

		休假計劃早就定好了。 (3) ㄱ: 오늘 식사는 어디에서 할까요? 今天去哪吃飯? ㄴ: 나만 따라오세요. 미리 봐 놓은 곳이 있어요. 跟我來就是了, 我 已經看好地方了
「韓國語」	慣用型, 用在他動詞之后, 表示動作已經完成, 但結果, 狀態仍保持。	(1) 숙제를 이미 <u>해</u> 놓았다. 已經做好作業了。 (2) 그는 모자를 벌써 <u>만들어</u> 놓았다. 他早已做好帽子了。 (3) 한국어 단어들을 공책에 <u>써</u> 놓았다. 已把韓國語單詞寫在筆記本上了。
「輕松學韓語」	輔助動詞。用于動詞干后, 表結果與狀態持續。	(1) 자동차를 어디에 세워 놓았습니까? (2) 이따가 찾으러 올 테니까 포장해 놓으세요. (3) 음식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맛이 없어져요.

문법 설명은 모두 간단하게 제시되어 있다. ‘-아/어 놓다’의 문법을 설명에 대한 「標準韓國語」는 한국어로 문법적 위치와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韓國語」에서는 문법을 설명할 때 ‘慣用型(관용형)’으로 통칭하며, 위치는 타동사 뒤에 나타나고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輕松學韓語」는 ‘보조동사’라는 용어로 설명하여 「標準韓國語」와 같이 모두 동사 뒤에 나타나고 동작이 완료되어 그 상태가 지속됨을 나타내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용어의 차이점을 보면 「韓國語」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요소가 결합한 형태는 모두 ‘慣用型’이라는 문법 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박문자(2007:30)은 중국의 한국어교재에서 ‘慣用型’의 문항들을 보면 어휘적 표현과 문법적 표현을 구별하지 않고 고정 구문 형태를 모두 ‘慣用型’ 항목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교육에 무리가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輕松學韓語」는 통사적 구문표현을 고려해서 ‘보조용언’이라는 표현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면 학습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재 간 통일한 표현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韓國語」에서 ‘慣用型’으로 명명하는 문법 항목에 대해서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문 부분은 「標準韓國語」의 학습할 문형은 3개 생활 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韓國語」의 경우는 학습할 문형 밑에 기호를 표시해 줘서 학습자의 주의를 끌 수 있다. 그러나 두 교재는 모두 중국어 보어구문과 대응하기 때문에 대응 기호를 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韓國語」의 “책꽂이에 꽃아 놓았어요.”에 대해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 “給你在書架上插好了。”와 같이 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輕松學韓語」는 중국어 대응 표현을 제시하지 않아서 의존 동사의 특징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러나 문장의 종류를 충분하게 고려하여 ‘의문문, 명령문, 평서문’을 나눠서 제시하여 문형의 활용을 돕고 있다.

⑤ 의존 동사 ‘-아/어 두다’

<표 19> 교재별 ‘-아/어 두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새로운 상태로 변화됨이 없이 그 상태를 그대로 지속시킨다는 의미가 있다.	(1) ㄱ: 혹시 제 사전 못 봤어요? 看到我的詞典了嗎? ㄴ: 아까 이 책상 위에 놓아 두었는데 어디 갔는지 없네요. 剛才放到桌子上了, 怎麼會沒有了. (2) ㄱ: 한국에서 생활하려면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在韓國生活要準備什麼呢? ㄴ: 무엇보다 한국어부터 배워 둘 필요가 있을 거예요. 首先有必要學會韓國語。 (3) ㄱ: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有沒有什麼可吃的? ㄴ: 배가 고프면 우선 이 빵이라도 먹어 두세요. 肚子餓的話就先吃個面包吧。 (4) ㄱ: 이 시계하고 지갑을 사물함에 넣어 뒀도 괜찮을까요? 把表和錢包放到儲物箱里沒關係吧? ㄴ: 괜히 잃어버리지 말고 아예 카운터에 맡겨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別弄丟了，最好交到服務台去。
「韓國語」	慣用型，動作已經完成，但結果，狀態仍保持。與‘-아/어/여 놓다’的意思相似，但是‘-아/어/여 두다’有把具體的東西加以保留的意思，而‘-아/어/여 놓다’則沒有這層意思。	(1) 불고기는 쇠고기에 맛있는 양념을 미리 <u>해</u>.....<u>두었다</u>가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烤肉是先在牛肉里放入美味的調料，然後再在火上烤着吃的食品。 (2) 불을 <u>켜</u>.....<u>두고</u> 잠이 들었다. 開着燈睡着了。 (3) 편지를 <u>써</u>.....<u>두</u>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 부치지 않았다. 信都寫好很長時間了，還

		沒寄出去。
「輕松學韓語」	輔助動詞，動詞詞干后，表示動作持續結果。和‘-아/어/여 놓다’相比，‘-아/어 두다’表示結果的持續性更強。	(1) 분명히 여기에 메모해 두었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2) 조 사장님께 연락해 두었으니까 시간이 있을 때 찾아가 보세요. (3) 아직 서류를 정리해 두지 못했습니다.

「標準韓國語」의 문법 설명 용어는 한국어로 제시하여 문법적 위치와 의미를 설명하는데 「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모두 중국어로 설명한다. 그러나 「韓國語」는 문법적 위치에 대한 설명 없이 ‘-아/어/여 두다’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輕松學韓語」교재는 ‘보조동사’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문법적 위치와 ‘-아/어/여 두다’와 비교적인 의미를 함께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문법 설명의 차이점을 보면 「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아/어/여 두다’와 ‘-아/어/여 놓다’의 의미를 비교하며 설명하는 반면, 「標準韓國語」는 대비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어 내다’, ‘-아/어 놓다’, ‘-아/어 두다’의 차이점에 대하여는 세 교재 모두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예문 부분은 「標準韓國語」는 4개 대화를 통해 학습할 문법 요목을 제시하고 있으며 「韓國語」와 같이 중국어로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다. 「標準韓國語」의 예문들에서 ‘놓다’, ‘배우다’, ‘먹다’, ‘넣다’와 「韓國語」의 예문들에서 ‘하다’, ‘키다’, ‘쓰다’의 행동이 완료된 후 상태를 유지하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들의 중국어 번역문을 보면 ‘放到’, ‘學會’, ‘吃个’, ‘交到’, ‘放入’, ‘開着’, ‘寫好’처럼 중국어 보어구조에 대응한다. 이런 대응 관계의 사이에 동일한 대응 표시를 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시계하고 지갑을 사물함에 넣어 뒀도 괜찮을까요?”에 대한 중국어 보어 구문 “把表和錢包放到儲物箱里沒關係吧?”와 같이 대응기호를 삽입하면 좋을 것이다. 「輕松學韓語」는 3개씩 문장으로 제시되어 있고 「標準韓國語」와 「韓國語」처럼 중국어 보어 구문

과 대응 비교하면 문법을 이해에 대해 도움이 될 수 있다.

⑥ 의존 동사 ‘-게 되다’

<표 20> 교재별 ‘-게 되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用于動詞之后，表示由于某种原因或环境，其形狀發生變化。	(1) ㄱ: 왕단 씨도 내일 지영 씨 집에 오시지요? 明天王丹也去智英家吧? ㄴ: 미안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 對不起，原來想去，可是有事，去不成了。 (2) ㄱ: 어떻게 세민 씨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你怎么認識了世明的? ㄴ: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습니다. 朋友介紹認識成的。 (3) ㄱ: 요즘에 왜 수영장에 안 나와요? 最近怎么沒來游泳? ㄴ: 사실에 다리를 다쳐서 못 나가게 되었어요. 說實話，我腿受傷了，所以來不成了。
「韓國語」	慣用型，用于用言后，表示轉爲某种新的情况或達到某种結果。	(1) 인터넷이 발달하여 컴퓨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互聯網的發展，使的人們用電腦可以做成很多事。 (2) 아저씨, 얼마나 있으면 사과를 먹을게 되나요? 大叔，還有多久才能吃上蘋果呀? (3) 이제 열흘 더 있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다. 再有十天就能出院。
「輕松學韓語」	常用格式。謂詞詞干后，表示動作已經完成或是達到某種狀態。	(1) 이번에는 지훈 씨가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마 신 과장이 그 일을 맡게 될 거예요. (3) 그 일리 아주 힘들게 돼서 걱정입니다.

세 교재의 문법 설명은 모두 중국어로 설명되고 있다. 큰 차이점을 보면 「標準韓國語」는 동사 뒤에 붙어야 된다고 용법을 이용하며 어떤 상황에서 다른 상황으로 변화하였음을 나타내고 「韓國語」는 용어 뒤에 붙어야하여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낸다. 「輕松學韓語」의 경우는 ‘술어’뒤에 붙어 있어 동작이 이미 완성되나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그런데 ‘동사’, ‘용언’, ‘술어’라는 용어는 통일하여 사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또한 ‘-게 되다’에 대해서는 박문자(2007:67)과 같이 “시제에 상관 없이 두루 쓰이며,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쓰이지 않는다”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예문 제시 부분은 「標準韓國語」에서는 대화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는 반면 「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문장으로 간단하게 보이고 있다. 또한 「標準韓國語」의 각 예문은 모두 중국어 보어 구문과 대응하여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대응 기호를 표시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부정 의미를 가진 “미안합니다. 가려고 했는데 일 때문에 못 가게 되었어요.”에 대한 중국어 부정형 결과보어 “對不起，原來想去，可是有事，去不成了。”와 같이 중국인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韓國語」는 예문(1)과 (2)는 모두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과 대응하는 예문 (3)은 중국어 보어 구문과 대응하지 않는다. 그러나 예문 (3)의 번역문이 뜻이 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중국어 보어 구문과 통일하게 대응하여 번역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예문 (3)의 번역문을 중국어 보어 구문 “再有十天就能出了(成)院了。”로 바꾸

는 편이 낫다. 『輕松學韓語』에서는 예문을 제시할 때 중국어로 대응하지 않고 한국어 문형만 있기 때문에 학습할 문법적 요소를 쉽게 이해할 수 없다.

⑦ 의존 동사 ‘-고 말다’

<표 21> 교재별 ‘-고 말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X	X
「韓國語」	慣用型 -고(야) 말다 用于動詞后, 表示動作的最終完成, 相当于漢語的“最終……”。-고后有時加補助詞-야, 表示強調。	(1) 설사 의미는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말니다다. 即使其意思是表達了, 也只能成爲一句很別扭的句子了。 (2) 맡았던 일을 어제 다 끝내고야 말았다다. 担負的工作終於在昨天完成了。 (3)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꼭 해내고야 말겠다다. 不管遇到多大的困難, 我們最終一定把那件事干了。
「輕松學韓語」	‘~고 말다’(KOREAN 중급 2, 제22과 참고)는 동작 동사의 어간에 붙어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1) 그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자기 고집 대로 하고 만다. (2) 내년에는 꼭 내가 원하는 대

	어떤 일이 실현되어 버렸음을 나타낸다. 또한 화자가 그 동작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화자를 나타내는 ‘-겠-’이 붙어 ‘~고 말겠다’의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필연의 의미를 갖는 ‘꼭, 반드시, 기필코’ 등의 부사와 자주 어울려 사용된다.	학에 가고 말겠습니다. (3) 감독은 다음 경기에선 기필코 우승하고 말 테니 두고 보라고 했다.
--	--	--

「標準韓國語」는 의존 동사 ‘-고 말다’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각 교재 목표와 교육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재에서 해당할 표현항목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韓國語」의 경우는 세 교재 중에 가장 이해가 쉬운 문법 설명이다. 중국어의 보충 설명을 통해 ‘야’의 강조적 의미를 알 수 있다. 「輕松學韓國語」의 경우는 다른 중급 「KOREAN」 교재의 설명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韓國語」의 문법 설명보다 중국어 학습자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韓國語」의 경우는 ‘-고 맙니다’, ‘-고야 말았다’, ‘-고 말겠다’의 예문 형식을 제시하여 문법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의존 동사 ‘-고 말다’의 예문에 대한 중국어 보어 구문 중에 명확하게 나타난 ‘掉’, ‘完’, ‘過’ 등의 단어가 나타나지 않고 결과 의미적인 ‘了’와 대응되어 있다. ‘了’의 기능은 중국어에 결과 의미적인 ‘掉’, ‘完’, ‘過’ 등과 같은 상 표지(Aspect marker)나 어기조사(語氣助詞)의 두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韓國語」의 예문은 결과 의미적인 ‘了’로 번역하여 대응관계가 이루어진다. 劉月華(2001:366)에서도 일부 동사 뒤에 동태조사 ‘了’를 붙이면 동작이 受事者에 모종의 결과를 낳음을 표시하며, 일부에 모종의 결과를 낳음을 표시하며, 일부 결과보어나 방향보어가 나타내는 의

미와 같다고 하였다. 그러나 조사 ‘了’의 의미가 많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중국어와 대응 관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보어 ‘掉’, ‘完’, ‘過’ 등의 구문을 이용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예는 (1)과 같다.

(1)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꼭 해내고야 말겠다.

가: 不管遇到多大的困難, 我們最終一定把那件事干了。

나: 不管遇到多大的困難, 我們最終一定把那件事干完了。

(1가)는 조사 ‘了’는 구문 중에 결과보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1나)는 조사 ‘完’는 결과보어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了’는 구문 중에 어기조사(語氣助詞)라는 기능이 나타난다. (1나)의 구문표현이 더 명확하게 ‘고 말다’의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輕松學韓語」는 3개의 예문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어와 대응 번역이 없어서 3개의 문장만으로는 학습이 어려울 수 있다.

⑧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

<표 22> 교재별 ‘-아/어 죽겠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X	X
「韓國語」	X	X
「輕松學韓語」	用于動詞或形容詞詞干后, 表示某一狀態或動作的程度到了极点。相当于漢語的“……死了”。	(1)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2)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죽겠어요. (3)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있어요?

문법 설명은 세 교재 중에서 「輕松學韓語」만 ‘-아/어 죽겠다’에 대한 자세히 문법적 위치와 의미가 설명되어 있는데 「標準韓國語」와 「韓國語」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법 요목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문법 교수요목을 개발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예문 부분은 「輕松學韓語」는 간략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한국어와 대응하는 중국어 번역문이 없기 때문에 학습자가 이해가 힘들다. 따라서 한국어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 구문과 중국어로 대응하는 보어구문을 같이 제시하며, 대응 부분을 표시해 주면 효과적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의존 동사 구문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에 대해 중국어 정도보어 구문 “那个人討厭死了。”와 같이 표시해 주는 것이 좋다.

⑨ 의존명사 ‘—(으)ㄴ적이 있다/없다’

<표 23> 교재별 ‘—(으)ㄴ적이 있다/없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用于動詞詞干后。 表示是否經歷過。 主要与“-아/ 어 보다”一起使用，构成“-아 / 어 본 적이 있다/없다”的形式。	(1) ㄱ: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 你去過韓國嗎? ㄴ: 아직 가 본 적이 없습니다. 還沒有去過。 (2) ㄱ: 불고기를 먹어 본 적이 있습니까? 吃過烤肉嗎? ㄴ: 네, 먹어 본 적이 있습니다. 是的，吃過。 (3) ㄱ: 이세민 씨를 아십니까?

		你認識李世民嗎？ ㄴ: 네, 전에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是的, 以前曾經見過幾次面。
「韓國語」	慣用型。 這一慣用型由冠詞形語尾 - ㄴ/-은, 依存名詞격있다(없다) 結合而成, 表示曾經有過 (或未曾有過) 某種經歷或機會, 相當於漢語的“曾經”, “……過” (或“未曾”, “沒……過”)。 - ㄴ 적이 있다(없다) 用於沒有韻尾的用言語干, 以韻尾ㄹ結尾的用言語干, 詞尾-시-/ -으시- 后; -은 적이 있다(없다) 用於有韻尾 (韻尾ㄹ除外) 的用言語干后。	(1) ㄱ: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적도 있다고 하던데 춥지 않았어요? 聽說氣溫曾降到零下三十度, 不冷嗎? ㄴ: 방한 준비를 미리 하고 갔기에 괜찮았어요. 去之前做好了防寒準備, 所以不覺得冷。 2) ㄱ: 요즘 새로 나온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까? 讀過最近新出版的書嗎? ㄴ: 한국어 공부가 힘들어 다른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韓國語學習很吃力, 所以沒讀過其他的書。
「輕松學韓語」	常用格式。是定語形詞尾 ~(은)는'和不完全名詞'일'或'적'的結合體, 此傲視	(1) 저는 일본에 간 일이 있습니다. 我去過日本。 (2) 저는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

	曾經有過進行某種事的經驗。相當于漢語的“曾經”，“……過”，或“未曾”，“沒……過”。	다. 我沒見過那女孩。
--	---	----------------

「標準韓國語」는 가장 간략하고 명확하게 제시해서 이해가 쉽게 된다. 또한 의사소통 상황에서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아/어 보다’와 같이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 용법을 제시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韓國語」는 학교 문법 체계로 이용하여 설명해서 이해가 어려워진다. 「輕松學韓語」의 경우 주로 문법항목을 의미적으로 분석하여 용법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지 않다. 그러나 “불완전한 명사 ‘일’이나 ‘적’과 연결해서 구성된다.”라는 설명은 오히려 이해를 어렵게 하는 점이 있다.

예문 제시는 「標準韓國語」와 「韓國語」 모두 대화형식으로 이루어지고 「輕松學韓語」는 2개 문장으로 매우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공통점을 보면 세 교재는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는데, ‘—(으)ㄴ 적이 있다/없다’는 중국어 결과보어 ‘過’과 정확하게 대응되므로 이러한 대응 관계를 명확하게 표시해 주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標準韓國語」의 “한국에 가 본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 “你去過韓國嗎?”를 표시하면 이해하기가 쉽다. 또한 「輕松學韓語」의 2개 예문은 “간 일이 있습니다”와 “만난 적이 없다”의 문법적 요소가 통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학습하기가 힘들다. 따라서 “간 일이 있습니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로 교체해야 표현도 명확해지고 두 예문의 상관성도 높아지게 된다.

⑩ 의존명사 ‘—(으)ㄴ 수 있다/없다’

<표 24> 교재별 ‘—(으)ㄴ 수 있다/없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用于謂詞詞干后，表示可能与否。	(1) ㄱ: 자전거 탈 수 있습니까? 自行車會騎嗎? ㄴ: 네, 탈 수 있습니다. 是的，會騎。 (2) ㄱ: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你能理解那人說的話嗎? ㄴ: 아니오, 이해할 수 없습니다. 不，不能理解。 3) ㄱ: 한국 소설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까? 你讀過韓國小說嗎? ㄴ: 없습니다. 저는 아직 한국 말을 잘 못 해서 한국 소설을 읽을 수 없습니다. 沒有，我的韓國語還不行，不能閱讀韓國小說。
「韓國語」	慣用型 這一慣用型由冠詞形詞尾-ㄴ/-을与表示可能性的依存名詞수及있다(없다)結合而成，表示能力与可能性，	(1) 그리고 재생도 할 수 있습니다. 另外，還可以放音。 (2) 그래서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因此，還可以知道時間。

	相当于漢語的“能”，“能够”。“可以”（“不能”，“不可能”，“不可以”）。 -ㄴ 수 있다 用于以原音或韻尾ㄴ 結尾的用言語干及先語末語尾-시-/ -으시-后，-을 수 있다(없다) 用于以韻尾（韻尾ㄴ 除外）結尾的用言語干和先語末語尾-았-/ -었-/ -였-后。	(3)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一个人做不了那件事。
「輕松學韓語」	常用格式。用于謂詞干后，表示一种行爲或狀態的能力或可能性与否。相当于漢語的“可以”，“能”，“能够”或者“不可以”，“不能”，“不能够”。開音節后用	(1)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開車會嗎？ (2)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신문 을 읽을 수 없습니다. 因爲漢字很多，不能看韓國報。 (3) 열쇠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沒鑰匙，不能開門。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의 문법 설명은 중국인 학습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표현으로 제시되어 있다. 왜냐하면 ‘-ㄴ 수 있다’를 간략하게 동사 뒤에 나타내는 능력 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韓國語」는 “관형형어미‘-ㄴ/-을’과 가능성 의존명사 ‘수’와 ‘있다/없다’로 같이 형성된다.”라고 설명하면서, “가능성이 있음이나 없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설명한다.

‘用言語干(용언어간), 先語末語尾(선어말어미)’처럼 한국어 학교문법 설명 체계로 이용하여 문법을 설명하기 때문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에 부담을 주고 있다. 또한 세 교재는 ‘—(으)ㄴ 수 있다/없다’의 기능에 대한 일반적으로 ‘설명’, ‘허락’, ‘부탁’, ‘요구’ 등의 기능성을 모두 설명하지 않았다.

예문 제시는 세 교재는 모두 중국어로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다. ‘—(으)ㄴ 수 있다/없다’는 중국어 가능보어 구문 밀접하게 대응하기 때문에 예문을 제시할 때 대응관계를 표시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에 대해서 중국어 가능보어 구문 “車開得可以嗎?”와 대응하는 부분을 표시하여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다.

⑪ 의존명사 ‘—(으)ㄴ 지 됐다’

<표 25> 교재별 ‘—(으)ㄴ 지 됐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으)ㄴ 지”用于動詞詞干后, 表示經歷的時間, 后面長跟上“지나다, 되다, 흐르다”.	(1) ㄱ: 한국에 온지 얼마나 됩니까? 來韓國多久了? ㄴ: 한국에 온 지 이제 한 달 됐습니다. 來韓國已經一個月了。 (2) ㄱ: 왕룡 씨는 잘 있습니까? 王龍過的好嗎? ㄴ: 나도 왕룡 씨 본 지 두 달이나 됐어요. 我已經兩個月沒見

		到王龍了。 (3) ㄱ: 중국어를 공부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漢語學了多久了? ㄴ: 6개월 됐습니다. 已經六個月了。
「韓國語」	慣用型， 由表示過去時制的冠形詞形語尾-ㄴ/-은與依存名詞지構成，用于動詞語干或先語末語尾-시-/-으시-后，表示動作或狀態所經歷的時間，相當于漢語的“已經”，“...以來”。	(1) 회사에 다닌 지 벌써 셋달이 넘었습니다. 在公司工作已經有3個多月了。 (2) 유학 온 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來留學已經一年了。 (3) 그 친구가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那個朋友離開多長時間了？
「輕松學韓語」	常用格式。是 지 和過去時態定于形詞尾 -(으)ㄴ 的結合體。表示動作或狀態持續到現在的時間。	(1) 그를 만난 지 여러 달이 지났다. 和他見面有幾個月了。 (2) 서울로 이사온 지 10 년이 되었다. 搬到首爾已經有十年了。 (3) 밥을 먹은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배가 고파요.

		吃完飯才30分鐘，肚子又餓了。
--	--	-----------------

문법 설명은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설명 방식으로 제시되어 있는 반면에 「韓國語」 교재는 ‘冠形詞形語尾(관형형어미), 語干(어간), 先語末語尾(선어말어미)’라는 학교문법 체계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韓國語」에서 문법을 설명하는 특징을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기술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해당 기능을 기계적으로 암송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박문자(2007:171)는 문법 형태를 자세히 제시하면 적절하게 활용을 제대로 못 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시험 성적은 높지만 한국어 사용 능력은 성적에 상응하지 못하는 현상이 많은 것은 이러한 문제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문 부분은 세 교재는 모두 중국어로 대응하여 제시하고 있다. 의존명사 ‘—(으)ㄴ 지 됐다’를 번역하면 중국어 수량보어 구문과 대응하기 때문에 대응 부분을 표시하면 해당 문법 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⑫ 복합동사 ‘-아/어 가다/오다(돌아가다)’

<표 26> 교재별 ‘-아/어 가다/오다(돌아가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X	돌아가다(自) 回去
「韓國語」	X	돌아가다(自) 返回, 歸去
「輕松學韓語」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작이 계속 되거나 공간적인 이동이 있음을 나타낸다. 화자가 있는 시간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점점 멀어지	(1) 아침 해가 점점 밝아 온다. (2) 다 완성되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3) 웬 남자가 나를 접근해 오면서 따라오라는 눈짓을

	면 ‘-어 가다’, 점점 가까 워지면 ‘-어 오다’의 형태 로 사용된다.	했다.
--	--	-----

문법 설명은 「標準韓國語」와 「韓國語」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고 어휘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輕松學韓語」는 문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고 ‘-아/어 가다/오다’의 진행성, 지속성, 방향성 의미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적인 ‘-아/어/여 가다/오다’에 대한 설명은 조금 어휘적인 ‘돌아가다’와 함께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문 부분은 「標準韓國語」와 「韓國語」 모두 합성용언 ‘돌아가다’에서 ‘가다’의 어휘의미 대응하는 중국어 방향보어 ‘去’의 구성 의미를 실현되어 있다. 「輕松學韓語」의 경우는 한국어 예문을 제시하고 있지만 중국어 방향보어 구문과 함께 제시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⑬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었다/ 였다’

<표 27> 교재별 ‘V+았다/ 었다/ 였다’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用于謂詞詞干与詞尾之間，表示過去時制。与陳述形詞尾相連“-았/었습니다”，与疑問形詞尾相連“-았/었습니까”。 詞干以“아,오”結尾時，其過去時制爲“았습니다(까?)”，其他情況爲“었습니다(까?)”。以結尾的謂詞采取“하였습니다	例如：좋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好 먹다: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吃過了。 하다: 하+ 었습니다 하였습니다 做過了。

	(까?)”的形式。	(1) ㄱ: 어제 무엇을 했습니까? 昨天干什么了? ㄴ: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在家看了書。 (2) ㄱ: 어제 영화를 봤습니까? 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昨天看了電影，非常有趣 ㄴ: 어디에서 봤습니까? 在哪看得? (3) ㄱ: 점심을 먹었습니까? 吃過午飯了嗎? ㄴ: 네, 먹었습니다. 是的，吃過了。
「韓國語」	先語末語尾， 介于用言語干，敘述格助詞“-이다”的語干或表示主題尊敬的先語末語尾“-시-/으시”之后，表示過去時制。語干最后一个音節的元音爲“ㅏ, ㅑ”時用“-았”，語干最后一	(1) ㄱ: 어제 뭘 했습니까? (하였습니까?) 昨天干什么了? ㄴ: 영화 ‘아리랑’을 봤습니다.(보았습니다) 看電影《阿里郎》了。 (2) 이침 일찍 일어났습니

	个音節的元音爲“ㅏ,ㅑ”以外的其他元音是用“-었”，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었”。“-았-/-었-/-었-”在于沒有韻尾的語干相連時，常緊縮爲一个音節。	다.(일어나+았습니다) 早上很早就起來了。 (3) 주말은 참 즐거웠습니다.(즐겁+었습니다) 周末非常愉快。
「輕松學韓語」	時制詞尾。用于謂詞詞干后，表示動作已完成，即過去時態。謂詞詞干最后的母音爲“아/오”時，用“-았”，其余的“-었”。“하다”作爲特殊的与“었”結合使用。	(1) 오늘 아침에 병원에 갔습니다 今天上去去医院了。 (2) 어제 소설책을 읽었습니다. 昨天看小說了。 (3) 작년에 해외 여행을 했습니다. 去年出國旅游了。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문법적 위치와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韓國語」의 복잡한 학교 문법 용어를 사용하는 방식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의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학습자에게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어 문법과 대응하는 중국어 문법 설명하는 방식을 사용하면서 쉬운 어휘를 이용하여 문법적 대응관계를 제시하는 편이 효율적이다.

「標準韓國語」는 문법의 합성 양식과 예문을 같이 제시하고 있다. 예문 부분은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과 대응하는 예문과 결과성 의미 ‘了’의 구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한국어에서는 동작의 목적달성이 동사에서 구현되고 시제 ‘ㅁ’의 형식과 공유하며 이는 적절한 굴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한국어에서는 결과보어가 드러난 뜻으로 사용되지 않고 결과의 의미를 나타내는 ‘了’만 강조

된다. 예를 들어,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의 과거시제형 ‘있’은 중국어 ‘了’와 대응하여 결과의 의미를 이루어진다. 이런 다양한 대응 예문이 같이 나타나면 학습자가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었다/ 었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⑭ 아/어서(이유)표현 ‘—아/어서(이유)’

<표 28> 교재별 ‘—아/어서(이유)’의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교재	문법 설명	예문 제시
「標準韓國語」	連接詞尾“-아/어서”用于動詞，形容詞的詞干后，表示原因，理由。 “-아/어서”不予表示時制的連用，也不能用于命令句和共動句中。在“名詞+이다”后常用“-라서”。 相当于漢語的“由于”，“因爲”。	(1) ㄱ: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怎么这么晚才到? ㄴ: 길이 막혀서 늦었습니다. 미안합니다. 堵車，所以晚了，對不起。 (2) ㄱ: 오늘 저녁에 같이 식사합시다. 今天晚上一起吃飯吧。 ㄴ: 미안합니다.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안 됩니다. 對不起，今天有約會，不行。 (3) ㄱ: 지난 일요일에 뭘 했습니까? 上个星期干什么了? ㄴ: 피곤해서 하루 종일 집

		에서 쉬었습니다. 由于很累，在家歇了一天。
「韓國語」	用于用言語干或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先語末語尾“-시-/-으시-”之后，表示原因，方式或時間的先后關係。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ㅏ,ㅑ”時用“-아서-”，用言語干最后音節爲“ㅓ,ㅕ”外的其他音節是用“-어서”，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여서”。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后用。除在叙述格助詞后邊使用的情况外“-아서/-어서/-여서”可縮略爲“-아/어/여”，但其意義相同。	(1) 이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這個太貴了，沒法買。 (2) 일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事情多的很，所以沒能去。
「輕松學韓語」	連接詞尾。用于謂詞詞干和題詞謂詞形后，比歐式前后句的原因或理由。以元音“아, 야, 오, 요”結尾的謂詞詞干用“-아서”，以其他元音結尾的謂詞詞干用“-어서”，“하다”后用“-여서”。另	(1) 늦어서 미안합니다. 對不起，我來遲了。 (2) 피곤해서 쉬려고 합니다. 有点累，想休息。 (3) 어제 갑자기 손님이 오셔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昨天突然來客人了，沒能做

	外, “-아.어/여서”不能与時態詞尾“았/었/였/겠”連用。	事。
--	---------------------------------	----

「韓國語」의 경우는 학교 문법 체계로 학교 문법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문법 형태의 기능을 설명하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반면에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모두 외국어로서 한국어 문법체계를 위주로 하여 한국어 문법 기술용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모국어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식을 한국어 문법을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이유를 표현하는 연결어미 ‘-아/어서’는 「韓國語」의 경우는 “용언이나 격조사 ‘이다’, 선어말어미 ‘-시-/으시-’ 뒤에 나타난다.”라는 방식으로 이유 표현을 제시하는 반면에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아/어/여서’를 하나의 구문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고 ‘원인, 이유, 방식, 수단, 목적’ 등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

예문은 세 교재에서 모두 중국어로 번역하여 제시하고 있다. ‘-아/어서’(이유)표현에 대한 「標準韓國語」의 “피곤해서 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는 중국어로 ‘因爲……所以’를 번역할 수 있는데 동사구 ‘在家歇了一天’(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는 상태보어가 되어 ‘累’(피곤하다)의 상태를 묘사하고 ‘在家歇了一天’(하루 종일 집에서 쉬었습니다)는 ‘累’(피곤하다)가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상태보어로 쓰여 “累得在家歇了一天”의 구문은 중국어에서는 더 부드럽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국어 동사 구문은 ‘아/어서’(선행문은 후행문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뜻으로 사용)는 상태보어와 대응할 때 교재에서 ‘得’ 자문을 바꿔서 이용하면 초급 학습자에게 이해를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와 같이 세 교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문법 기술 용어의 문제이다. 세 교재는 모두 한국어 문법의 용어를 그대로 옮겨 사용하고 문법 설명이 간략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해당문법을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 었다/ 였다'에 대한 설명할 때 「韓國語」의 설명 용어는 先語末語尾(선어말어미), 用言語干(용언어간), 格助詞(격조사) '이다'의 語干(어간), 過去時制(과거시제)란 한국어 문법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에서는 謂詞詞干(서술어어간), 詞尾(어미), 時制(시제)란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한국어 학습자에게 유용한 점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모어에 대한 문법지식뿐 아니라 한국어의 문법지식도 거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둘째는 문법 설명이 학습자의 언어(중국어)와 대조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이다. 세 교재는 모두 중국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로 문법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진재 (2011:74)에서는 중국어의 용어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고 학습자들이 문법을 공부할 때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하였다. 「標準韓國語」와 「輕松學韓語」는 초, 중급 단계에서 중국어로 설명하고 있고 고급 단계에서는 한국어로만 설명하고 있다. 두 교재에서 모두 중국어와 대조하여 한국어 문법을 설명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韓國語」는 초급부터 고급까지 중국어로 설명되어 있는데 중국어와 대조 설명도 빠져있다.

셋째는 문법의 배열 순서¹⁸⁾에서 사용빈도의 문제이다. 이미혜(2005:72)는 의사소통 상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중요도가 높으며, 학습자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용빈도를 고려하면 본고에서 「標準韓國語」의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으)ㄴ 수 있다/없다', '—(으)ㄴ 지 됐다'는 모두 중급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 한국어 표현 능력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없다. 교재를 개발할 때 사용빈도를 많이 고려한다면 문법 교육의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또한 사용빈도가 높은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에 대한 「標準韓國語」는 문법을 설명하지 않고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에 대해서는 「標準韓國語」와 「韓國語」에서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이 문법 요목은 실생활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문법 항목이기 때문에 초급 단계에서 문법 교수요목을 개발해야 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

18) 이미혜(2005:72-75)에서는 문법 항목을 배열하는 기준으로 사용 빈도, 난이도, 일반화 기능성, 학습자 기대 문법, 주제/기능/과제, 연계성을 들고 있다.

넷째는 문법 설명에 부합되는 예문이 중국어 번역문과 대응 기술의 문제이다. 「標準韓國語」와 「韓國語」는 모두 중국어로 대응하여 예문이 제시되어 있다. 반면에 「輕松學韓語」는 중급2부터 중국어와 대응하지 않고 한국어 예문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韓國語」는 한국어 예문을 제시할 때 해당 문법을 표시해 주지만 한국어 동사구와 중국어 번역문의 사이에 대응기호를 표시를 안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다섯째는 중국어 번역예문과 한국어 구문의 관련성의 문제이다. 세 교재에서 한국어 동사구문과 중국어 문법의 유사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문을 번역할 때 자주 한국어 구문과 대응하지 않는 문장을 이용하여 제시하기 때문에 학습자가 두 언어의 문법의 대응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제 4 장 한국어 동사구 학습 개선 방안 모형

이제까지 중국 내 한국어 교재 세 종에 대해 문법 설명과 예문 제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여기에서는 중국어 보어구문과 한국어 동사구를 대비하여 방법을 제안해 보겠다.

4.1 문법 설명 개선

① 설명 방법

먼저 각 교재 간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한국어 교재에서 초급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중국의 문법용어를 사용할 필요도 있다. 최윤곤(2010:101)에서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은 성인일 경우에는 이미 모국어의 문법을 이해하고 있는 학습자이므로 학습에 필요한 모국어 용어를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것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標準韓國語」에서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에 대해 아래 (1)과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를 같이 설명하면 학습자의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

(1) 동사 뒤에 어떤 행동을 완전히 끝내 그 결과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은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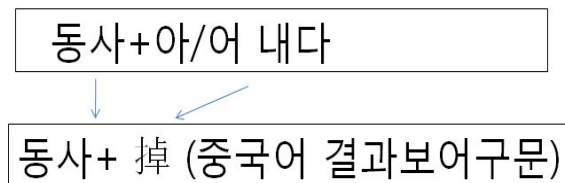
動詞詞后，表示動作徹底結束。

② 대조 분석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중국인 학습자가 대상임은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중국인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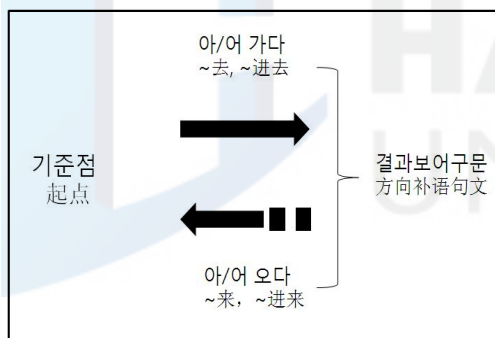
한국어 문법 설명과 비교하여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김제열(2001:203-229)은 문법을 기술하기 전에 한국어 문법과 중국어 문법의 대조분석과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문법 항목을 이해하거나 사용할 때의 오류에 대한 오류 분석을 꼭 실행해야 하고 분석 결과를 문법 기술에 반영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아/어 버리다’에 대한 문법 설명은 (2)와 같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③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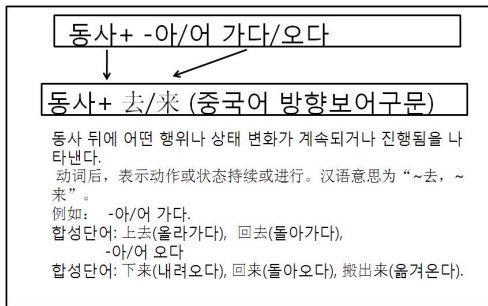
<그림 15> ‘-아/어/여 가다/오다’의 의미



한국어 동사구 ‘-아/어/여 가다/오다’는 중국어 방향보어 구문 ‘-去’, ‘-來’와 같은 의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대응시키면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문법적인 ‘-아/어 가다/오다’에 대한 설명은 조금 어휘적인 합성단어 ‘돌아가다’와 함께 연계해서 설명하며 중국어 방향보어구문과 대응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는 아래 (4)와 같다.¹⁹⁾

19) 문법 설명은 국립국어원(2005:514)을 참고하였다.

(3)



④ 유사성

양 언어의 문법적 유사성을 대응시킬 때는 유사 항목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하여 설명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의존 동사 ‘-아/어 내다’, ‘-아/어 놓다’, ‘-아/어 두다’의 문법 설명은 혼동하기 쉽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이와 유사한 의미, 기능을 갖는 문법 항목 간의 유사성을 함께 기술해 주어야 한다. 의존 동사 ‘-아/어 두다’와 ‘-아/어 놓다’ 및 ‘-아/어 내다’를 연계하여 설명한 내용은 아래 (4)와 같다.

(4)

‘-아/어 두다’ 和 ‘-아/어 놓다’ 都是動作已經完成，但結果，狀態仍保持。
但是 ‘-아/어 두다’ 有把具體的東西加以保留的意思，而 ‘-아/어 놓다’ 則沒有這層意思。‘-아/어 내다’ 是 結果完全實現，三個都與結果補語句文相對。

(4)의 중국어 설명은 한국어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아/어 두다’와 ‘-아/어 놓다’ 역시 동작이 이미 완성 된 것이다. 그 완성의 결과와 상태는 그대로 지속 된다. 그러나 ‘-아/어 두다’는 어떤 사물을 남겨 두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반면에 ‘-아/어 놓다’는 그런 의미가 없다. ‘-아/어 내다’는 결과가 완전히 이루어 되는 의미를 나타낸다. 이 세 개 의존 동사는 중국어결과보어와 대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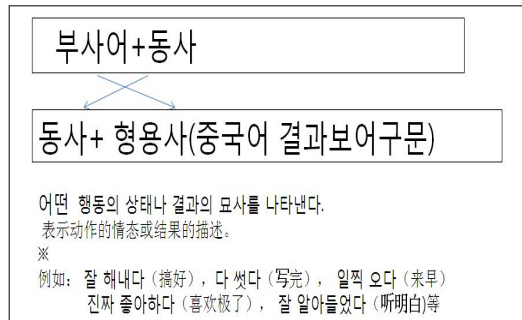
위에서 제안한 개선 방안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문법 설명의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부사어+동사

기존 「韓國語」 교재

잘 : (副)好好地, 很好地, 正好
많이: (副)多, 多多地

교재 개선 방안



먼저 한국어 '부사어+동사'구와 대응하는 중국어 결과보어 구문의 대응관계를 같이 제시하면 문법 설명과 예도 중국어로 대응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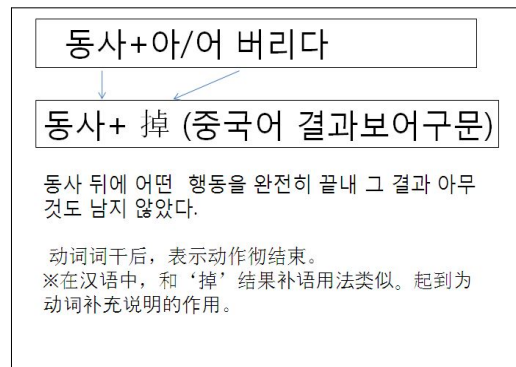
- 학습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다.

-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기존 「韓國語」 교재

慣用型, 表示動作徹底完了

교재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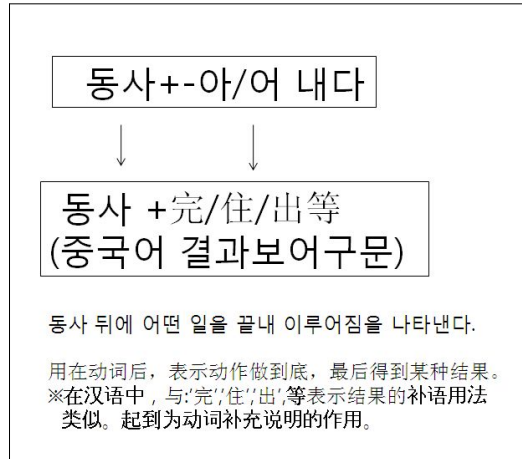


● 의존 동사 ‘-아/어 내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慣用型，用在他動詞后，表示動作做到底，最后得到某种結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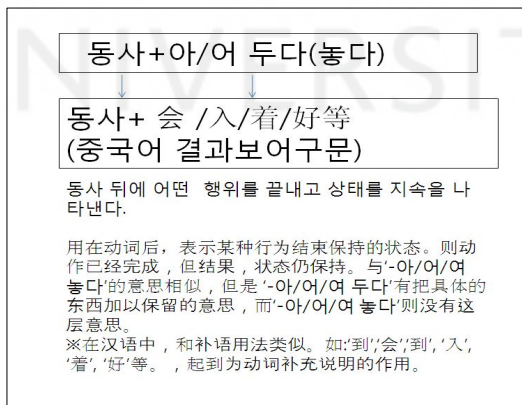


● 의존 동사 ‘-아/어 두다’에 대한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慣用型，動作已經完成，但結果，狀態仍保持。与‘-아/어/여 놓다’的意思相似，但是 ‘-아/어/여 두다’有把具体的東西加以保留的意思，而‘-아/어/여 놓다’則沒有這層意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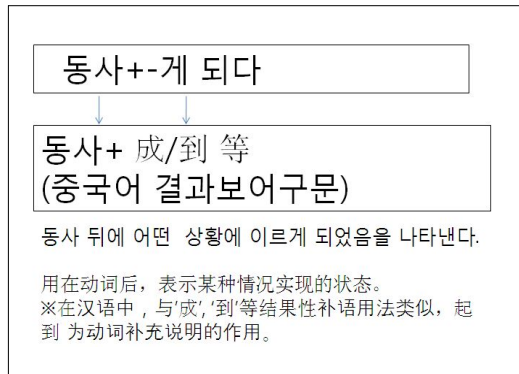


● 의존 동사 ‘-게 되다’에 대한

기존 「韓國語」 교재

慣用型，用于用言后，表示轉爲某种新的情况或達到某种結果。

교재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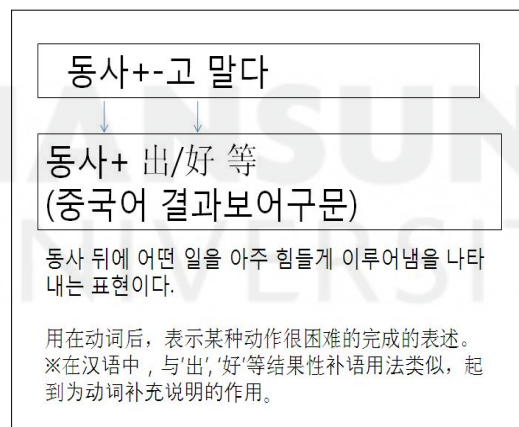


● 의존 동사 ‘-고 말다’에 대한

기존 「韓國語」 교재

‘~고 말다’(KOREAN 중급2, 제22과 참고)는 동작 동사의 어간에 붙어 화자가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어떤 일이 실현되어 버렸음을 나타낸다. 또한 화자가 그 동작을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낼 때도 사용된다. 그러므로 화자를 나타내는 ‘-겠-’이 붙어 ‘~고 말겠다’의 형태로 주로 사용된다. 그리고 필연의 의미를 갖는 ‘꼭, 반드시, 기필코’ 등의 부사와 자주 어울려 사용된다.

교재 개선 방안



●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

기존 「輕松學韓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用于動詞或形容詞詞干后，
表示某一狀態或動作的程度
到了极点。相当于漢語的
“……死了”。

동사/형용사+-아/어 죽겠다

↓

↙

동사/형용사+ 死
(중국어 정도보어구문)

동사, 형용사 뒤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에 의
해 감정이 극도로 높아지는 의미를 나타낸다.

用在动词或形容词后，表示以某种动作或状态，感
情达到极度高的表述。

※在汉语中，与‘死’程度性补语语法类似，相当于汉
语的“……死了”。起到为动词补充说明的作用。

●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慣用型。
這一慣用型由冠詞形語尾 - ㄴ
/-은, 依存名詞적있다(없다) 結合
而成，表示曾經有過（或未曾
有過）某種經歷或機會，相当
于漢語的“曾經”，“……過”
（或“未曾”，“沒……過”）。

-ㄴ 적이 있다(없다) 用于沒有
韻尾的用言語干，以韻尾ㄹ結
尾的用言語干，詞尾-시-/ -
으시-后；-은 적이 있다(없다)
用于有韻尾（韻尾ㄹ除外）的
用言語干后。

동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

↙

동사+ 过/(不曾 ...过/没...过)
(중국어 결과보어구문)

동사 뒤에 어떤 동작의 그 상태가 나타나는 때가
있거나 없음을 표현이다.

用在动词后，表示某种动作曾经有过（或未曾有过）
某种经历或机会，相当于汉语的“……过”，（或
“没……过”）。

※在汉语中，与‘……过’，（或“没……过”）等结
果性补语连用，起 到为动词补充说明的作用。

● 의존명사 ‘—(으)ㄴ 수 있다/없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慣用型
這一慣用型由冠詞形詞尾-ㄴ/-을與表示可能性的依存名詞수及있다(없다)結合而成，表示能力與可能性，相當於漢語的“能”，“能够”。“可以”（“不能”，“不可能”，“不可以”）。
- ㄴ 수 있다用于以原音或韻尾ㄴ結尾的用言語干及先語末語尾-시-/ -으시-后，-을 수 있다(없다)用于以韻尾（韻尾ㄴ除外）結尾的用言語干和先語末語尾-았-/ -었-/ -였-后。慣用型。

동사+- (으)ㄴ 수 있다/없다

↓

↙

**동사+ ‘得/不’자문
(중국어 가능보어구문)**

동사 뒤에 능력이거나 가능성이 있거나 없음을 의미한다.

用在动词后，表示某种能力或可能性的有无。
※在汉语中，与“得”，“不”等可能性补语连用，起到为动词补充说明的作用。

● 의존명사 ‘—(으)ㄴ 지 됐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慣用型，
由表示過去時制的冠形詞形語尾-ㄴ/-은與依存名詞지構成，用于動詞語干或先語末語尾-시-/ -으시-后，表示動作或狀態所經歷的時間，相當於漢語的“已經”，“...以來”。

동사+- (으)ㄴ 지 됐다

↓

↓

**동사+ (到/过+时间)
(중국어 수량보어구문)**

동사 뒤에 일을 한 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를 나타낸다.

用在动词后，表示事情过去持续的时间。
※在汉语中，与“到+时间”，“过+时间”等数量性补语连用，起到为动词补充说明的作用。

● 복합동사 ‘-아/어 가다/오다(돌아가다)’

기존 「輕松學韓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동작 동사와 결합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동작이 계속 되거나 공간적인 이동이 있음을 나타낸다. 화자가 있는 시간이나 장소를 기준으로 점점 멀어지면 ‘-어 가다’, 점점 가까워지면 ‘-어 오다’의 형태로 사용된다.

동사+ -아/어 가다/오다

동사+ 去/来 (중국어 방향보어구문)

동사 뒤에 어떤 행위나 상태 변화가 계속되거나 진행됨을 나타낸다.

动词后，表示动作或状态持续或进行。汉语意思为“~去，~来”。

※在汉语中，与“~去”，“~来”等方向性补语连用，起到为动词补充说明的作用

例如：-아/어 가다.

합성단어: 上去(올라가다), 回去(돌아가다),
-아/어 오다

합성단어: 下来(내려오다), 回来(돌아오다), 搬出来(옮겨온다).

● 동사의 과거시제형 ‘V+왔다/ 었다/ 었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

先語末語尾，介于用言語干，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或表示主題尊敬的先語末語尾“-시-/으시”之后，表示過去時制。語干最后一个音節的元音爲“ㅏ,ㅑ”時用“-았”，語干最后一个音節的元音爲“ㅓ,ㅕ”以外的其他元音是用“-었”，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였”。“-았-/-었-/-였-”在于沒有韻尾的語干相連時，常緊縮爲一个音節。

동사+왔다/ 었다/ 었다

동사+ 到/完~了 (중국어 결과보어구문)

동사 뒤에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 이미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用在动词后，表示某种情况或事由已经时间的结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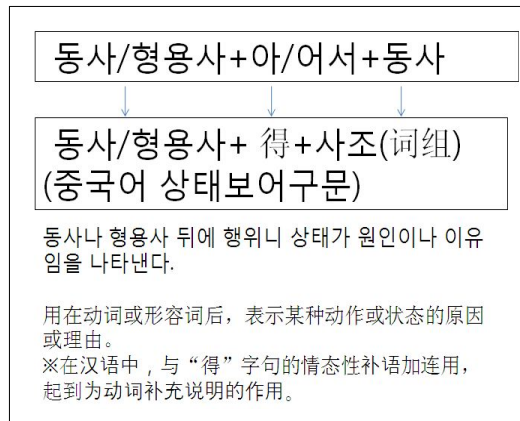
※在汉语中，与“到/完”结果性补语加“了”连用，起到为动词补充说明的作用。

● ‘-아/어서(이유표현)’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用于用言語干或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先語末語尾“-시-/-으시-”之后，表示原因，方式或時間的先后關係。用言語干最后音節的元音爲“ㅏ,ㅑ”時用“-아서-”，用言語干最后音節爲“ㅏ,ㅑ”外的其他音節是用“-어서”，以“하”結尾的用言語干后用“-어서”。叙述格助詞“-이다”的語干后用。除在叙述格助詞后邊使用的情况外“-아서/-어서/-어서”可縮略爲“-아/어/여”，但其意義相同。



4.2 예문 제시 개선

① 중국어 번역문

예문을 제시할 때에도 중국어 번역예문과 대응하는 효과적인 제시 방법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어 번역문과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의 사이에 대응 기호를 표시해주면 이해가 쉽게 될 수 있다. 예는 아래 (5)와 같다.

(5)

(1) 그 일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这么快就把那件事做完了。
↓

(2) 남기지 말고 몽땅 먹어 버려라.
别剩下, 都吃掉。
↓

(3) 그는 명예와 권리를 내던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他抛弃了名誉和权力回到了故乡。
↓

‘끝내 버리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는 ‘做完’(동사 ‘做’와 보어 ‘完’), ‘먹어 버리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는 ‘吃掉’(동사 ‘吃’와 보어 ‘掉’), ‘던져 버리다’와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는 ‘抛弃’(동사 ‘抛’와 보어 ‘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한국어 의존 동사와 중국어 결과보어구문의 대응관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기호를 삽입하면 좋을 것이다.

또한 ‘아/어서(이유)’에 대한 예문 제시 방법은 아래 (6)과 같다.

(6)

(1) 이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这个太贵得没法买。
↓

(2) 일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事情多得没能去。
↓

한국어 동사 구문은 ‘아/어서’(선행문은 후행문의 이유나 원인이 되는 뜻으로 사용)는 상태보어와 대응할 때 교재에서 ‘得’ 자문을 바꿔서 이용하여 초급 학습자에게 이해를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예문의 관련성

교재를 개발할 때 문법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두 언어의 예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어 구문과 중국어 문법과 유사성을 고려해서 모두 대응관계가 있는 예문을 사용하여 제시하면 효과적인 수 있다. 예는 아래 (7)과 같다.

(7)

중국어 보어	한국어 동사구	예문
결과보어	부사어+동사 잘...	그가 이 책을 <u>잘</u> 읽었다. // 他讀 <u>懂</u> 了這本書刊。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아/어 내다 -아/어 두다(놓다) -게 되다 -고 말다	밥을 먹어 <u>버렸다</u> . // 吃 <u>掉</u> 飯了。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먹어 <u>본</u> 적이 있다. // 吃 <u>過</u> 。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었/였	이 영화를 보 <u>았다</u> . ↓ 這個電影看 <u>完</u> 了
	복합동사 -아/어 가다/오다	경기가 회복되 <u>어</u> 갔다. // 經濟恢復 <u>回</u> 去 <u>了</u> 。
방향보어	복합동사 -아/어 가다/오다 (돌아가다)	빨리 돌아 <u>가</u> 다. // 快点回 <u>去</u> 。
가능보어	의존명사	옷을 <u>팔</u> 수 있다.

	-(으)ㄴ 수 있다/없다	↓ 衣服都賣得光了。
수량보어	의존명사 -(으)ㄴ 지 됐다	↓ 한국에 온 지 3년 됐다. ↓ 朋友來韓國3年了。
상태보어	—아/어서(이유)	↙ 그녀는 울어서 눈이 빨개졌다. ↘ 女孩哭得眼睛都變紅了。
정도보어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	↙ 날씨가 더워 죽겠다 ↘ 天氣熱死了。

위에서 제안한 예문 개선 방안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부사어+동사

기존 「韓國語」 교재

잘: (副)好好地, 很好地, 正好
많이: (副)多, 多多地

교재 개선 방안

① 이 말을 잘 알아들었다.

↓
這句話听明白了。

② 술을 많이 마셨어요.

↙
酒喝多了。

③ 그 사람을 몹시 원망해요.

↙
恨透那人了。

● 의존 동사 ‘-아/어 버리다’

기존 「韓國語」 교재

- (1) 그 일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这么快就把那件事做完了。
- (2) 남기지 말고 몽땅 먹어 버려라.
別剩下，都吃掉。
- (3) 그는 명예와 권리를 내던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他拋棄了名譽和權力回到了故鄉。

교재 개선 방안

- (1) 그 일 벌써 다 끝내 버렸어요?
这么快就把那件事做完了。
- (2) 남기지 말고 몽땅 먹어 버려라.
別剩下，都吃掉。
- (3) 그는 명예와 권리를 내던져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他拋棄了名譽和權力回到了故鄉。

● 의존 동사 ‘-아/어 내다’

기존 「韓國語」 교재

- (1)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낸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韓國人不是也制造出不錯的詞嗎?
- (2) 글썄요. 아무리 기억해 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是呀，不管怎么想都想不出來。
- (3) 처음 몇 달만 견디어 내면 차츰 습관이 될 겁니다.
只要能熬過去几个月，就會逐漸習慣。

교재 개선 방안

- (1)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낸 좋은 단어가 있잖아요?
韓國人不是也制造出不錯的詞嗎?
- (2) 글썄요. 아무리 기억해 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는데요.
是呀，不管怎么想都想不出來。
- (3) 처음 몇 달만 견디어 내면 차츰 습관이 될 겁니다.
只要能熬過去几个月，就會逐漸習慣。

● 의존 동사 ‘-아/어 놓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 (1) 숙제를 이미 해 놓았다.
已經做好作業了。
- (2) 그는 모자를 벌써 만들어 놓았다.
他早已做好帽子了。
- (3) 한국어 단어들을 공책에 써 놓았다.
已把韓國語單詞寫在筆記本上了。

- (1) 숙제를 이미 해 놓았다.
已經做好作業了。
- (2) 그는 모자를 벌써 만들어 놓았다.
他早已做好帽子了。
- (3) 한국어 단어들을 공책에 써 놓았다.
已把韓國語單詞寫到筆記本上了。

● 의존 동사 ‘-아/어 두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 (1) 불고기는 쇠고기에 맛있는 양념을 미리 해 두었다가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烤肉是先在牛肉里放入美味的調料，然后再在火上烤着吃的食品。
- (2) 불을 켜 두고 잠이 들었다.
開着燈睡着了。
- (3) 편지를 써 두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 부치지 않았다.
信都寫好很長時間了，還沒寄出去。

- (1) 불고기는 쇠고기에 맛있는 양념을 미리 해 두었다가 불에 구워 먹는 것입니다.
烤肉是先在牛肉里放入美味的調料，然後再在火上烤着吃的食品。
- (2) 불을 켜 두고 잠이 들었다.
開着燈睡着了。
- (3) 편지를 써 두는 지가 오래 되었는데 아직 부치지 않았다.
信都寫好很長時間了，還沒寄出去。

● 의존 동사 ‘-게 되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1) 인터넷이 발달하여 컴퓨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互聯網的發展，使的人們用電腦可以做成很多事。

(2) 아저씨, 얼마나 있으면 사과를 먹게 되나요?

大叔，還有多久才能吃上蘋果呀？

(3) 이제 열흘 더 있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再有十天就能出院。

(1) 인터넷이 발달하여 컴퓨터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互聯網的發展，使的人們用電腦可以做成很多事。

(2) 아저씨, 얼마나 있으면 사과를 먹게 되나요?

大叔，還有多久才能吃上蘋果呀？

(3) 이제 열흘 더 있으면 퇴원하게 됩니다.

再有十天就能出院。

● 의존 동사 ‘-고 말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²⁰⁾

(1) 설사 의미는 전달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어색한 문장이 되고 말았다.

即便其意思是表達了，也只能成爲一句很別扭的句子了。

(2) 말았던 일을 어제 다 끝내고야 말았다.

担負的工作終於在昨天完成了。

(3)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1) 아내의 병을 꼭 고치고 말겠다.

一定要治好愛人的病。

(2) 나는 거짓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我說出了謊言。

(3) 불행한 일이 발생하고 말았다.

20) 예문들은 박문자(2007:67)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걸 꼭 해내고야...말겠다.

不管遇到多大的困難，我們最終
一定把那件事干了。

不行的事還是發生出來了。

● 의존 동사 ‘-아/어 죽겠다.’

기존 「輕松學韓語」 교재

- (1)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2)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죽겠어요.
(3)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있어요?

교재 개선 방안

- (1) 그 사람이 미워 죽겠어요.
↓
那个人討厭死了。
(2) 아이가 공부를 안 해서 머리가 아
파 죽겠어요.
↘
孩子不學習我頭疼死了。
(3) 배가 고파 죽겠는데 먹을 게 있어요?
↓
肚子餓死了有吃的嗎？

● 의존명사 ‘—(으)ㄴ 적이 있다/없다’

기존 「輕松學韓語」 교재

- (1) 저는 일본에 가 일이 있습니다.
我去過日本。
(2) 저는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교재 개선 방안

- (1) 저는 일본에 가 본 적 있습니다.
↙
我去過日本。
(2) 저는 그 여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

我沒見過那女孩。

다.

我沒見過那女孩。

● 의존명사 ‘—(으)르 수 있다/없다’

기존 「輕松學韓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1)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開車會嗎?

(2)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因為漢字很多，不能看韓國報。

(3) 열쇠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沒鑰匙，不能開門。

(1) 운전을 할 수 있습니까?

車开得會嗎?

(2) 한자가 많기 때문에 한국 신문을 읽을 수 없습니다.

因為漢字很多，看不韓國報。

(3) 열쇠가 없기 때문에 문을 열 수 없습니다.

沒鑰匙，開不了門。

● 의존명사 ‘—(으)ㄴ 지 됐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1) 회사에 다닌 지 벌써 세 달이 넘었습니다.

在公司工作已經有3个多月了。

(2) 유학 온 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來留學已經一年了。

(3) 그 친구가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회사에 다닌 지 벌써 세 달이 되었습니까?

在公司工作已經有3个多月了。

(2) 유학 온 지 일년이 되었습니다.

來留學已經一年了。

(3) 그 친구가 떠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那个朋友離開多長時間了？

那个朋友離開多長時間了？

● 복합동사 ‘-아/어 가다/오다’

기존 「輕松學韓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 (1) 아침 해가 점점 밝아 온다.
(2) 다 완성되어 가니까 조금만 기다려.
(3) 웬 남자가 나를 접근해 오면서 따라오라는 눈짓을 했다.

- (1) 아침 해가 점점 밝아 온다.
↓
早上的太陽漸漸的亮起來了。
(2) 물가가 내려간다.
↙
物价降下來了。

● 동사의 과거시제형 ‘V+았다/ 었다/ 였다’

기존 「韓國語」 교재

교재 개선 방안



HANSUNG
UNIVERSITY

(1) ㄱ: 어제 뭘 했습니까?(하엿
습니까?)
昨天干什么了?
ㄴ: 영화 ‘아리랑’을 봤습니
다.(보았습니다)
看電影《阿里郎》了。
(2) 이침 일찍 일어났습니다.(일어나
+았습니다)
早上很早就起來了。
(3) 주말은 참 즐거웠습니다.(즐겁+
었습니다)
周末非常愉快。

(1) 영화 ‘아리랑’을 **봤**습니다.
看**完**電影《阿里郎》了。
(2) 이 책을 읽**었**습니다.
看**過**這本書了。
(3) 일자리를 찾아보**았**다.
最終找**到**工作了。

● 아/어서(이유)표현

기존 「韓國語」 교재

(1) 이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這個太貴了，沒法買。
(2) 일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事情多的很，所以沒能去

교재 개선 방안

(1) 이것은 너무 비**싸**서 못 사겠어요.
這個太貴**得**沒法買。
(2) 일이 많**아**서 못 갔습니다.
事情多**得**沒能去。

이상에서 문법 설명 및 예문제시의 교재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한국어 동사구와 중국어 보어구문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제시하면 중국인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 5 장 결 론

본고는 중국어 보어구문을 이에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의 유사성을 체계적으로 대비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재 개선 방안 및 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중국어 보어구문의 특성과 종류를 살펴보고, 이에 대응되는 한국어 동사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중심으로 중국 내 한국어교재의 문법 설명방식과 방안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1장에서는, 연구 목적, 연구내용과 방법,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중국어는 한국어와 다른 언어이기 때문에 발음, 문법, 어휘적인 차이점이 많지만 유사한 부분도 적지 않다. 이미 알고 있는 중국어 문법을 이용하여 대조 분석함으로써 한국어 문법을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기 때문에 두 언어 비교를 통해 한국어 동사구를 학습할 때 나타나는 경우를 알아보고 중국어 보어와 한국어 동사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면서 중국인 학습자가 한국어 동사구를 배울 때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장에서는, 중국어 보어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보어의 정의를 설명하며 중국어 보어의 종류를 고찰하였다. “결과보어, 방향보어, 가능보어, 수량보어, 상태보어, 정도보어”의 여섯 가지 분류에 따라 각각의 보어의 정의와 특징을 예문과 함께 제시하면서 중국어 보어와 대응하는 한국어 동사구는 “부사어+동사, 의존 구문, 의존명사, 동사의 과거시제형, 복합동사, 아/어서(이유)표현”이 있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대응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체계적으로 한국어 동사구의 학습 및 교육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3장에서는, 중국 내 한국어 교재를 선정하여 한국어 동사구에 대한 교재에서 제시 설명과 내용 설명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있어 이에 대한 우선 문제점을 찾아보았고 각 문제에 따라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기본교재들의 문법 항목 설명이 예문 제시에 대한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법 기술 용어의 문제이다. 교재에서 설명 용어는 先語末語尾(선어말

어미), 用言語干(용언어간), 格助詞(격조사), 語干(어간), 過去時制(과거시제), 謂詞詞干(서술어어간), 詞尾(어미)란 용어를 사용하여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실제 한국어 학습자에게 이해하기가 힘들다.

둘째, 문법 설명이 학습자의 언어(중국어)와 체계적으로 대응시키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어 문법을 번역할 때 중국어로 대비하면 한국어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기본교재에서만 있었다. 이러한 대비 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표현도 적지 않았다.

셋째, 의존명사와 의존 동사의 배열 순서는 각 교재마다 서로 차이로 보인다. 교재 개발할 때 사용빈도를 많이 고려한다면 문법 교육의 효과가 크게 증대될 것이다.

넷째, 문법 설명에 부합되는 예문이 중국어 번역문과 대응 기술과 관련성의 문제이다. 한국어 예문을 제시할 때 해당 문법을 표시해 주지만 한국어 동사구와 중국어 번역문의 사이에 대응기호를 표시 안 하기 때문에 학습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없다. 또한 중국어 번역예문과 한국어 구문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대응 예문을 사용하면 학습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4장에서는, 교재 분석 과정에서 문제점은 문법 기술 용어, 문법의 배열 순서에서 사용빈도, 중국어 번역문과 대응 기술 등이 나뉘서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모국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 문법 설명과 비교 분석을 통해 학습자를 이해시키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한국어 교재를 개발할 때 중국인 학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국어의 문법용어가 필요하고 한국어 문법과 중국어 문법(한국어 동사구와 중국어 보어 구문)을 대비하여 적용할 수 있는 연구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국어 동사구에 대한 교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따라서 교육 개선 방안 모형에 적용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어 보어구문과 대응시킬 수 없는 일부 한국어 동사구는 이 논문에서 자세히 언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어 동사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중국어의 다른 문법 현상과 관련시켜 설명하는 일이 더 필요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연구 과제로 남기겠다.

【참고문헌】

1. 자료

北京大學 等 共同編著(2007), 「標準韓國語1」, 北京大學出版社
北京大學 等 共同編著(2007), 「標準韓國語2」, 北京大學出版社
北京大學 等 共同編著(2007), 「標準韓國語3」, 北京大學出版社
李先漢 等(2005), 「韓國語1」, 民族出版社
李先漢 等(2005), 「韓國語2」, 民族出版社
李先漢 等(2005), 「韓國語3」, 民族出版社
李先漢 等(2005), 「韓國語4」, 民族出版社
가나다 韓國語補習班(2006), 「輕松學韓語1」, 北京大學出版社
가나다 韓國語補習班(2006), 「輕松學韓語2」, 北京大學出版社
가나다 韓國語補習班(2006), 「輕松學韓語3」, 北京大學出版社
가나다 韓國語補習班(2006), 「輕松學韓語4」, 北京大學出版社
가나다 韓國語補習班(2006), 「輕松學韓語5」, 北京大學出版社
가나다 韓國語補習班(2006), 「輕松學韓語6」, 北京大學出版社

2. 연구논저

국립국어원. 2005.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 커뮤니케이션북스.
고후원. 1990. “현대중국어의 「동(動) + 보(補)」 관계(1)”, 「중국어문
화」, 영남중국어문학회.
김수희. 2004.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어휘 교육 - 기본어휘에 나타
난 한자 어휘를 중심으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
학교 한국어학당.
김지혜. 2010. 「한국어 이유 표현 연구」, 한국문화사
김제열. 2001. “한국어 교재의 문법 기술 방법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

- 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 김진호. 2008.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 박이정.
- . 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개론」(개정판), 박이정.
- 김은순. 2008. “현대 중국어의 의미구조와 보어형식”,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종호. 2003. “현대 중국어 補語에 상응하는 한국어 성분의 위치문제”, 「중국어문화논집」, 중국어문학연구회.
- 김화숙. 2005. “現代漢語 補語 指導方法 研究”,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효정. 2005. 「맛있는 중국어, Level 3」, JRC에듀케이션 교재편지부.
- 박기현. 2007. 「현대중국어」, 제이앤씨.
- 박덕유. 1994. 「학교문법론의 이해」, 역락출판사.
- 박문자. 2007. 「한국어 교육 문법과 의존 구성 연구」, 박이정.
- 박영신. 1991. “국어 의존 동사의 통어론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정실. 2009. “한국어와 중국어의 용언 부사어 대조 연구”,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 결. 2011. “한국어 연결어미 교육 방안 연구”,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득금. 2010. 「실용 중국어 문법론」, 하운근.
- 손춘섭. 1992.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全南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안영수. 2008. 「한국어 교재 연구」, 하우.
- 안정아. 2005. “의존 명사 ‘수’와 ‘줄’의 의미 연구”, 「어문논집」, 민족어문학회.
- 안효경. 2001. 「현대국어의 의존명사 연구」, 역락출판사.
- 왕 미. 2010. “中國大學校의 初級 韓國語 教材 文法 項目의 分析：助詞 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 립. 2009.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긍정·부정적 어휘 의미 대조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 남. 2009. “한국어 보조용언의 중국어 대응 표현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혜. 2005. 「한국어 문법 항목 교육 연구」, 박이정.

- 이병관. 2010. 「나의사랑, 중국 어법」, 신아사.
- 이익섭. 2008. 「한국어 문법」,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지선. 2008. 「고등학교 중국어 I 교과서의 현대 중국어 보어 고찰」,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재성. 1987. 「한국어의 시제와 상」, 국학자료원.
- 위수광. 2004. “현대 한어 정도보어·상태보어구조상 비교 연구”, 釜山外國語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최윤곤. 2007. 「한국어문법교육과 한국어 표현법주」, 한국문화사.
- _____. 2007.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구문표현 연구」, 한국문화사.
- 최희수. 2005. “중국의 한국어 교육에서 제기되는 과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평생교육원. 2005.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 허성도. 2010. 「현대 중국어 어법의 이해」, 사람과책.
- 찰스 N . 리 · 샌드라. 톰슨. 2009. 「표준 중국어 문법」, 한울 아카데미.
- 守屋宏則. 1988. 「베이징 중국어 기초문법」, 시사중국어문화원.
- 王 力. 1954. 「現代中國語文法」, 商務印書館.
- 張 靜. 1956. 「語法比較」, 中國語文學社.
- 呂叔湘. 2004. 「중국어 문법 분석록」, 學古房.
- 梁鴻雁. 2009. 「HSK어법을 이기는 전략」, 시사중국어사.
- 陳榮心. 2003. “韓中語彙 比較에 關한 研究”, 大邱가톨릭大學校 大學院, 석사학위논문.
- 張志公. 1953. 「漢語語法常議」, 中國青年出版社.
- 朱德熙. 1981. 「語法講義」, 北京:商務印書館.
- 盧福波. 1996. 「對外漢語教學實用語法」, 北京語言大學出版社.
- 李明花. 2010. “한국어 ‘-어 버리다’와 중국어 ‘掉’의 대조 연구”, 「동아인 문화」, 동아인문학회
- 李錦姬. 2003. 「現代漢語」, 北京語言大學出版社.

ABSTRACT

The Study the Teaching & Learning method using Chinese complement sentence

Han, Shuang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
Literatur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In modern Chinese, the complement is located after verbs or adjectives which plays the role of additional meaning of the verb on adjectiv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mplement, there are different classifications. In this thesis, the author chose six common types of complements to analysis. The six complements are resultative complement, directional complement, probable complement, quantitative complement, state complement, extensive complement. In China, the most often used of mandarin teaching material : "standard Korean", "the Korean", "it's easy to learn Korean", appearing form of the grammatical and example analysis. It is helpful for the Chinese learners to study Korean phrases on dynamic. Otherwise, There will be needed some improvements in the development of the teaching materials. For example, in grammar, three teaching material that mentioned the phrase in advance and so on are not matched in Chinese. Therefore, it is hard for Chinese to study this kind of instruction phrase. So developing the of the teaching material, we will use the systemic similarity of the Korean verb construct sentences and Chinese

complement sentences. Another is the use of the example contrasts translation which is at the end of essay. The value and key point of this essay is to make use of Chinese six types of complements to study Korean verb construct sentences. In a word, in the development of the teaching material, make full 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eatures of Chinese complements. For the example, it can play the important role for Chinese to study Korean to use the special symbols to correspond.



中 文 摘 要

중국어 보어구문을 활용한 한국어 동사구 교수 · 학습 방법 연구

漢城大學校 大學院

韓國語文學科

韓國語教育專攻

韓 爽

在現代漢語中，補語在句子中位于動詞或形容詞后起到對動詞或形容詞補充說明的作用。補語的形式依据分析者有不同的分類，在本論文中，筆者選擇了常見的六大補語類型進行分析。這六大補語為結果補語，方向補語，可能補語，數量補語，情態補語，程度補語。在中國常使用的3大韓國語教材《標準韓國語》，《韓國語》，《輕鬆學韓語》中，出現的形式的，語法分析，和例句分析，使中國的韓國語學習者在韓語動詞句文的學習上起到一定的幫助。另外在教材的開發上，提出了一些參考的改進意見，例如，在語法的說明上，三个教材中出現的先語末語尾，用言語干，格助詞等，在中文語法中沒有對應的內容，因此，這類說明用語對於中國人來說學習起來比較困難。而且，在教授和學習上，我們將使用系統話的對比方式對韓國語動詞句和中文補語句文進行比較，使韓國語的學習更加具有效率性。利用中文的六大補語句文來學習韓語的動詞句時，是本論文的价值所在。所以，在教材的開發時，充分利用中文補語句文的特点，在例句中，采用特殊的對應符号，對中國人學習韓國語能起到推波助瀾的作用。